

모두가 함께 만드는 안전문화!

산업재해예방 유공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2017년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우수 사례집.
24명의 염원을 담아
행복으로 가는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함께하는 안전문화
재해없는 안전일터
2017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우수 사례집

함께하는 안전문화 재해없는 안전일터

2017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우수 사례집

함께하는 안전문화 재해없는 안전일터

2017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우수 사례집

본 책자는
24명 산업재해예방 유공자의 수상을 격려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
〈함께하는 안전문화 재해없는 안전일터〉라는 이름의
우수 사례집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함께하는 안전문화 재해없는 안전일터

2017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우수 사례집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CONTENTS

2017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우수 사례집

PART 01 훈장

006	(주)심텍 최시돈 대표이사 안전한 심텍에서 지속성장 가능한 심텍으로
012	(주)케이에이치티 권기찬 생산부서장 안전을 담보하는 주인 의식
018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김현욱 교수 지식 기반의 자문과 정책 제안으로 완성한 창의적 예방활동

PART 02 산업포장

024	한미정밀화학(주) 장영길 대표이사 출근한 모습 그대로 퇴근할 수 있는 행복 일터
030	(주)영우 이용주 대표이사 무방심(無放心), 일직심(一直心) 원칙으로 일군 안전 일터
036	(주)케이씨씨 여주공장 이신영 안전환경팀장 안전에 없는 단어, 타협과 양보

PART 03 대통령 표창

044	대성기업(주) 김영명 상무이사 안전은 의식이기 전에 노력
048	중흥토건(주) 서우진 상무이사 전 직원이 안전전문가로 나서 '중대재해 제로'에 도전
054	현대산업개발(주) 경기태전4지구아파트신축공사 이용상 현장소장 안전의 기초는 '기본 엄수'
060	OCI(주) 익산공장 오창우 보건관리자 시스템 너머에서 꿈꾸는 안전현장

066	GS건설(주) 최수환 시스템파트장 안전은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운 문화'
072	(주)서연이화 김향미 보건관리자 기업 역량의 제1 전제는 근로자의 건강
078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광일 실장 매일 매일이 안전 점검의 날, 안전보건의 생활화 실천
082	한국경영자총협회 임우택 본부장 안전보건을 향한 삼위일체의 노력과 조율
086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기식 안전보건정책연구실장 패러다임 바뀌어도 '한 우물 정신' 그대로

PART 04 국무총리 표창

092	(주)에스지텍 김동연 대표이사 노사협력으로 완성한 무재해 일터
098	선우정밀(주) 김홍덕 대표이사 위험성평가 4대 행동원칙 정립으로 일군 4무(無) 사업장
104	(주)PMS 조원국 대표이사 바꿀 수 없는 절대가치, 안전
110	(주)대진 장지수 대표이사 긍정 에너지로 만드는 안전문화
116	SK하이닉스(주) 김영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한 포괄적 안전보건 시스템 확립
122	(주)건우 정병복 안전관리자 모두가 함께 만든 6,294일의 무재해 신화
128	현대교통(주) 이병열 과장 맨투맨 교육으로 안전의식부터 혁신
134	태원건설산업(주) 1-1생활권단지조성공사 장인찬 안전관리자 안전규정 준수는 내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일
140	한경대학교 토목안전환경공학과 백신원 교수 집단지성 모아 안전사회로 가는 대한민국

01

훈장

창의 안전과
능동 보건의 실천



006

(주)심텍 최시돈 대표이사
안전한 심텍에서
지속성장 가능한 심텍으로

012

(주)케이에이치티
권기찬 생산부서장
안전을 담보하는
주인의식

018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김현욱 교수
지식 기반의 자문과 정책 제안으로
완성한 창의적 예방활동



01
산업훈장

(주)심텍 최시돈 대표이사 안전한 심텍에서 지속성장 가능한 심텍으로

(주)심텍의 경영 제1원칙은 '환경안전'이다. (주)심텍은 이를 회사의 방침으로 선포하고,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임을 표명했다. 방침과 의지에서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설립했으며, 반복적인 교육과 사원 참여활동을 통해 '안전한 심텍'을 만들어가고 있다.

소재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73

업종
제조업

직원수
2,300명
(경영진 35명 포함)

2016년 산재예방 투자액
15억 원

특징
반도체용 PCB
세계 1위 기업

홈페이지
www.simmtech.co.kr

전화번호
043-269-9405

경영의 제1원칙 '환경안전'

1987년 설립한 심텍은 반도체 및 통신기기용 PCB 제조에만 집중해온 기업이다. 지난 30년 동안 축적해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심텍은 '반도체용 PCB 세계 1위 기업'이라 평가 받고 있다. 적기 투자, 특화된 생산 라인, 공정기술 개발의 지속성, 차세대 기술개발 주력 등으로 기업을 성장시켜 온 심텍의 핵심가치는 '정직을 행하는 것(Integrity)'이다. "심텍인의 선언서 첫 번째는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입니다. 조직 구성원이 정직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움직일 때 비로소 진정한 기본 가치가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2월, 심텍을 맡게 된 최시돈 대표의 경영 1원칙은 '환경안전'이다. 자신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회사 대표라서가 아니라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정직하게 안전보건을 기본적 실행가치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심텍의 안전보건은 기본 수칙인 동시에 핵심가치를 실행하는 제1원칙인 셈이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안전관리

국제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AS 18001)을 인증 받은 심텍은 '반도체용 PCB 세계 1위 기업' 답게 글로벌 경영을 위한 전사적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했다. 안전보건과 관련한 매뉴얼, 프로세스, 표준 문서를 제정하고 원활한 운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내 안전보건 전산 시스템인 'SHE(Safety, Health, Environment)'를 개발했다. 전 임직원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SHE시스템은 안전보건 목표관리, 위험성평가, 법규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안전보건의 영역을 더욱 확장시켰다. "기업경영에 있어 리스크는 여러 부분에 존재하지만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돼 재해를 당한다는 것은 관리 및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폭발, 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민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 경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즉, 안전관리 활동은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우리의 소중한 가치의 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더욱 안전보건을 경영의 제1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최시돈 대표는, 자신의 생각이 현장의 근로자들에게까지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혁신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임직원 심신을 채우는 안전보건 활동

최근 심택은 안전한 일터를 위해 '보건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우선 '냄새 없는 공장 만들기'를 위해 환기 시스템에 투자를 진행하였고, 건강증진 활동의 일환으로 금연운동을 전개하여 금연에 성공한 임직원에게는 30만 원의 '금연 인센티브'를 주고, 절주도 유도한다. 강압적이지 않고 자율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녹아들 듯 참여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모두 건강해야만 안전문화가 형성될 수 있고, 전 직원이 스스로 참여할 때 비로소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심택은 최근 무재해 2배수를 달성하면서 안전한 일터임을 증명해 보였다. 그 배경에는 회사의 소리 없는 지원이 컸다. 앞서 언급했듯이 금연, 절주를 비롯해 비만관리 프로그램 및 건강검진을 수시로 실시하고, 유소견자의 경우 철저하게 사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직무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 시작 전 스트레칭도 빼놓지 않는다.



이외에도 꼭 알리고 싶은 것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안전행동을 위한 행동 기반 안전 모니터링이다. 작업자의 불안전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안전행동으로 교정하고, 불안전 행동을 유발하는 물(物)적 요인까지 개선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작업장 곳곳에 설치한 대형 스크린 사진이다. 작업 성격상 창문 없는 클린룸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자연을 안으로 들인 것이다.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나무와 숲 풍경을 보며 직원들은 이렇게 말한다. “저 사진을 보고 있으면 힐링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심택의 일터는 임직원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며, 안전보건의 충만한 행복 일터로 나아가고 있다.

Safety Talk

“지속성장 가능한 심택을 위한 합심된 마음”

주심택 최시돈 대표이사

안전의 주체는 회사의 전 임직원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문제의 원인을 나로부터 찾는다면 좀 더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임직원이 일치된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는 반복적 교육과 참여의식 고취,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산재예방은 곧 나와 내 가족과 우리 회사를 지키는 일이고,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안전보건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심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주)심텍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주)심텍의 산업재해 현황

0

2014년

1

2015년

0

2016년

0

2017년 현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CEO 안전 메시지
(안전 지침)
환경안전보건방침
사내 총 111개소 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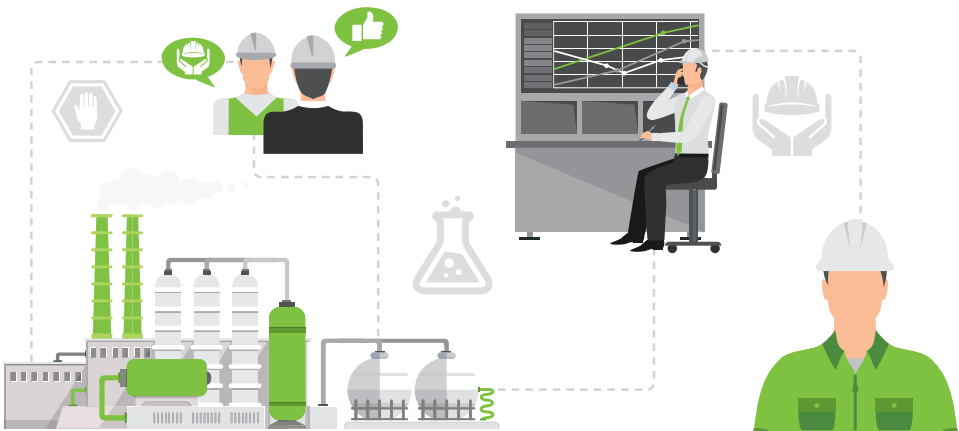
안전보건경영체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운영
(정기 분기 1회, 임시 월 1회)



안전보건경영시스템
OHSAS18001
(2015년),
PSM: S등급,
RMP/ORI 자체 진단 작성



산업재해 대응체계
사내 방재센터(14명) 및
건강관리실 운영(2명)



안전보건 활동



총괄 현황

- 법정 안전보건관리자(안전관리자: 3명, 보건관리자: 3명)
- 관리감독자: 137명(안전담당자: 90명, 현업 안전책임부서장: 13명)
- 안전보건교육: 5개 교육 과정 운영(신입, 정기, 관리감독자, 변경 시, 특별)



원 · 하청 상생협력
원 · 하청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2014년~현재)



분야별 활동

- 안전분야 활동:
노사 · 관리감독자 참여점검, Touch&Call 현장교육, 안전작업허가 및 JSA 제도,
안전보건전산시스템 구축, BBS활동(Behavior Based Safety),
설비선정 안전기준 프로세스 운영
- 보건분야 활동: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연 1회), 만 40세 이상 재직자 종합검진,
소음 개선 활동, VOCs 저감 활동, 금연 활동



우수 사례

- 화학물질 누출 조기감지 및
누출 방지 시스템 구축,
N2가스 조기감지 및 차단 시스템 구축
- S.H.E PRO-3M* 활동:
작업장 환경개선, 표지 규격화,
Eye-CoC활동 등
(Eye Contact Checklist)

*PRO:Process, Rule, Ownership ,
3M:My Machine, My Job, My Area

성과 및 기타사항



주요 성과

- 산재예방 감사패(2007년)
- 산업간호 우수사례 최우수(2008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표창(2012년)
- 근로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선정
(2012년)
- 무재해 2배수 달성
(2015.5.12 ~ 2017.1.12)



안전문화 확산

사내 안전문화 동영상 상시 방영,
통근버스 안전홍보물 게시,
안전보건 퀴즈 이벤트 실시,
안전문화 지수 향상을 위한 설문,
분석 안전문화 지수 향상 계획 수립



사회적 기여활동

외주 협력업체 납품차량
운전자 안전인증 제도 시행,
외주 임가공업체 정기평가 및
기술지원



02
산업훈장

(주)케이에이치티 권기찬 생산부서장 안전을 담보하는 주인의식

국내 열처리 분야에서 첫 손에 꼽힐 정도로 이름난 (주)KHT는 올해로 창립 47년 된 베테랑 업체다. 2011년부터 안전에 관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지금까지 무사고를 이어가고 있다. 이미 무재해 2배를 달성했으며, 지금도 꾸준히 기록을 경신해가고 있다. 아울러 LS엠트론 협력업체로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해 2016년에는 A등급을 받는 등 역동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소재지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 6로 131


업종
제조업
(금속열처리사업)


직원수
23명


2016년 산재예방 투자액
5,300만 원


특징
LS엠트론 협력업체


홈페이지
www.한국열처리.com


전화번호
063-262-1771

사고가 있는 곳엔 '소통'이 없다

“원래는 김해에서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관참은 곳이었지만, 좀 더 넓은 무대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고민하던 중 선배의 권유를 따라 KHT에 입사했어요. 그게 1997년이니까, 벌써 20년 전이네요.” 여전히 청년처럼 웃는 권기찬 생산부서장은 “초창기 한국열처리는 성수동에서 창업했다”며 그때를 회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는 공단이 밀집한 안산으로 자리를 옮겼고, 고객사인 LS엠트론의 접근성을 위해 완주로 내려온 게 11년 전이라고 한다.

“LS엠트론이 지척에 있다 보니 공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훨씬 용이했죠. 대기업 안전관리자들이 저희 회사를 직접 방문해 점검을 하고 개선해야 할 점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그가 입사했던 당시만 해도 회사의 안전 수준은 ‘전무(全無)’한 상태였다. 이유를 찾기 위해 현장을 찬찬히 둘러보고 그가 내린 결론은 소통 부족이었다. “현장직업자와 중간관리자 사이에 호흡이 맞질 않았어요.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인데... 시끄러운 현장에서 뜨거운 쇠를 만지다 보니 현장직업자들은 부드럽게 소통하는 데에 그리 익숙하지 않습니다. 중간관리자의 소통 기술이 뛰어나지 않았던 것도 하나의 이유였고요.”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권기찬 이사가 직접 나섰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안전 관련 지적을 끊임없이 해나갔다. 중간관리자들에게는 “자기 한 몸 편하자고 불안전을 못 본 척 하면 안 된다”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처음엔 반발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현장의 최고참과 중간관리자의 조율자 역할을 자임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었다. 개선이 필요한 곳, 소통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 뛰어갔다. 그런 노력은 현장의 변화로 이어졌다.

모든 해답은 현장에 있다

권기찬 생산부서장이 KHT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안전과 관련된 설비를 확충하는 것이었다. 회사의 업력이 늘어나며 자연스레 근로자의 연령대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큰 걱정이었죠. 틈 날 때마다 안전보건공단을 괴롭혔습니다. 조급이라도 더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말이지.”

권기찬 생산부서장은 “덕분에 열처리 출하공정상 근골격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중량물 이송 작업을 위한 리프트, 고주파작업장 근로자들의 피로를 감소시킬 수 있는 피로예방 매트, 현장직업자들의 손과 팔, 허리의 부담을 덜어줄 컨베이어 설치기 완료됐다”며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 보건에 대한 지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현장은 누구나 상황을 쉽게,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곳이다. 현장직업자들의 공정 진행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현장은 안전해진다 믿기 때문이다. “2016년도에 KHT와 창조혁신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스마트팩토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생산, 안전, 품질에 대한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는 다행스럽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물론 새로운 시스템이 아무 준비 없이, 어떤 오류도 없이 저절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권기찬 생산부서장부터 새로운 교육을 받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할 업체 선정을 위해 고심을 거듭해야 했다. 그렇게 현장에 자리 잡게 된 정보화 시스템은, 처음엔 현장작업자들에게 환영 받지 못했다. “오랫동안 일을 해 오신 분들에게는 자기만의 방식, 고집 같은 게 있어요. 작업의 상태나 현황에 대해 자기만 알고 있는 경우도 흔하고요. 그러니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와 모든 걸 낱알이 알려주는 상황이 그리 달가울 리는 없었겠지요.”

그런 불만도 잠시였다. 생산 제품에 찍힌 바코드만 갖다 대면 현재 어떤 공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모니터가 생기자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10년 이상 베테랑과 3년 미만의 미숙련자가 작업상황에 대해 동등한 이해도를 갖게 되면서 현장은 훨씬 원활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열처리하는 인류의 작업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꼽히는 일입니다. 청동기시대부터 제련이 시작됐으니까요. 하지만 시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맞춰 현장도 변해야 효율도 높아지고 안전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기분 좋은 별명, '잡부'로 사는 법

입사 20년차인 권기찬 생산부서장은 현장을 누비는 데 주저함이 없다. 이곳 저곳을 둘러보며 혹시 모를 불안전 요소를 찾아내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한다. “신입 사원들 중에는 저를 '잡부'라 생각하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안전의 최전선에 서 있는 잡부라면, 그것도 멋있고 보람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현장작업자들이 잘 따라주고 있어 고맙다고 한다. 다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권기찬 생산부서장 혼자 힘으로는 그것을 보충하는 게 쉽지 않다. 이제는 후임들이 안전관리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고, 그런 이유로 KHT의 미래는 밝다. 제2, 제3의 권기찬이 탄생하게 될 테니까 말이다.

Safety Talk

“주인의식이 안전의 밑바탕입니다”
 (주)KHT 권기찬 생산부서장

회사에는 분명히 소유주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몸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회사'라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안전만큼은 내가 회사에서 가장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먼저 깨닫고 능동적으로 챙기고 신경을 써야 온전히 내 것이 되거든요. 그런 걸 보통 주인의식이라 하지요? 안전에 있어서 주인의식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내 안전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자각이 안전의 가장 든든한 밑바탕입니다.

한눈에 보는 (주)케이에이치티의 산재예방 활동

(주)케이에이치티의 산업재해 현황

0

2014년

0

2015년

0

2016년

0

2017년 현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CEO 안전 메시지(안전 지침)

1. 안전보건활동을 경영의사 결정 시 기본요소로 삼는다
2. 안전보건법규 및 규정을 자율적으로 준수한다.
3. 안전보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으로 재해를 예방한다.



자율적인 위험성평가 인정시스템 구축

안전보건 활동



총괄 현황

- 안전관리담당부서장: 1명/
관리감독자: 1명/
안전담당자: 3명
- 안전보건교육
내부 교육:
매일 아침 작업전 스트레칭,
안전교육, 안전점검,
매주 화요일 안전보건교육 실시
- 외부 교육:
대한산업안전협회
(위험성평가담당자교육),
대한산업보건협회
(안전보건지킴이교육),
안전보건공단(질식재해예방),
창조경제혁신센터
(스마트팩토리 추진리더과정 이수)



원·하청 상생협력

LS엠트론(주) 전주공장의 협력업체로
원·하청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2016년)



우수 사례

'스마트 팩토리 사업 추진'으로
자동화 된 생산라인 관리와 더불어
작업자의 사고예방을 위한
FOOL PROOF 시스템 운영으로
업그레이드 된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정착



분야별 활동

- 안전분야 활동:
잠재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등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 전 안전점검 및 3정 5S 활동
- 보건분야 활동:
작업 전 근골격계질환 예방 스트레칭, 근로자 일반·배치 전·특수 건강진단
실시, 근골격계 질환예방 유해요인조사 및 근로자 주지교육 실시,
근골격계질환예방 리프트 제작(2,500만 원), 작업자 피로예방매트 설치,
근로자 건강보건센터 초빙 건강상담 및 체크 등

성과 및 기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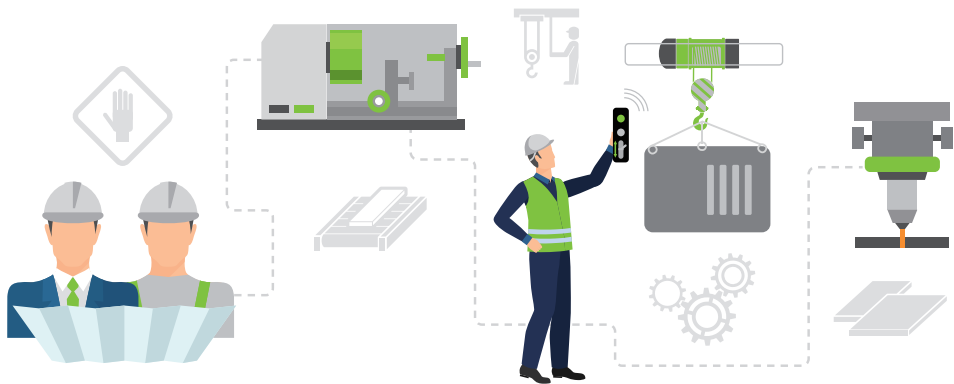
주요 성과

- 무재해 2배수 달성(2011.1.20 ~ 2014.5.10)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2013.11.28 ~ 2016.11.27)
• 클린사업장 인정(2014.6.25)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재인정(2016.10.26 ~ 2019.12.31)



안전문화 확산

LS엠트론(주) 전주공장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추진 협조





03

근정훈장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김현욱 교수

지식 기반의 자문과 정책 제안으로 완성한 창의적 예방활동

김현욱 교수는 산업위생과 산업보건 분야에 30년간 몸담아 왔다. 그 사이 우리나라 산업위생과 산업보건 분야도 발전했다. 김 교수는 가톨릭대학교에서 산업재해예방과 관련한 전문인을 양성하는 한편, 연구자로서 안전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학술활동에 기반을 둔 창의적인 예방활동에 힘썼다.

국내 산업안전보건의 발전과 함께하다

국내 산업안전보건 분야가 아직 성숙하기 전인 1980년,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했던 김현욱 교수는 당시 불었던 '중동 근무 열풍'에 제대 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년간 일했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했다. 그때만 해도 국내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걸음마 단계에 있었다.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김현욱 교수는 유학을 결심하고 1982년에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미국에서 머물며 산업안전보건 분야 석·박사를 취득한 그는 현지에서 관련 분야 교수로 생활하다 1992년에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부임했다. "당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가톨릭대학교에 산업보건대학원이 설치되었습니다. 그 후로 대학원에서 산업안전보건 강의를 시작했고, 의과대학생에게도 환경 관련 수업을 했어요."

1990년대만 해도 국내 대다수 안전보건 체계는 일본의 것을 따르는 경향이 짙었다. 국제적 기준과는 다소 동떨어진 경우가 많아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김현욱 교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기준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국내 유해물질 분류 체계 연구를 통한 관리 방안 제시, 산업위생 분야의 정도 관리 발전 방향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석면과 근골격계 관련 법안 마련에 기여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대부분의 규칙 개정 현장에는 김현욱 교수가 있었다. 그런 그가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꼽는 것은 석면 관리 방안 마련에 참여한 것이다. "당시 국내 상황은 석면 관련 연구 기반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까지 가서 석면 분석을 해야 했죠. 자체적으로 기술을 습득해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갔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김현욱 교수는 석면을 사용한 건축물을 해체, 제거할 때 일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법안을 마련했고, 꾸준히 관련 연구를 이어가며 국내 석면 피해 현황을 조사했다. 이는 석면피해구제법 제안의 바탕이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석면금지국가 중 한 곳입니다. 석면 문제는 상당 부분 없어진 상황이에요. 하지만 과거에 지은 건축물에는 석면이 남아 있습니다. 전국의 광산 역시 폐쇄되었지만 주변 토양에 석면이 남아 있는 곳이 있어요. 석면의 영향은 적게는 15년, 길게는 30년 후에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도적이고 환경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보건 분야에서는 근골격계 관련 법안을 제안했다. 이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하나의 계기였다. 그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예방 교육 과정을 만드는 데에도 참여했다.

국내 최초 호흡보호구 분야 신규 연구 기반 다져

한국산업위생학회장, 석면피해구제위원회 위원, 고용노동부 역학조사평가위원 및 작업환경분과위원장, 고용노동부 안전보건포럼 위원 및 반도체 모니터링 위원, 석면안전성평가위원 등의 활동을 해오며 산업위생 분야 기준 제정과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김현욱 교수. 그는 2013년에 한국호흡보호구 학회를 설립하며 초대회장으로서 산업현장은 물론 국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염물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호흡보호구를 연구 개발하고 관리하는 전문 기관을 만들었다. “1992년부터 호흡보호구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국내에는 호흡보호구를 연구하는 인력이 매우 적습니다. 어떤 면에서 근로자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호흡보호구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수영할 때 맞지 않는 수경을 쓰면 물이 새듯이, 호흡보호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3차원인데, 이제까지 기준은 2차원으로 제시되었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법안 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에서 25년간 후학을 양성해온 김현욱 교수는 3년 후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 분야 발전에 필요한 학술 연구와 정책 제안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지도를 받은 전문인들이 계속해서 그 역할을 감당해주길 당부한다. “이제 제 역할은 후학들이 나아갈 방향 제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일입니다. 세계와 겨룰 자료를 낼 수 있으려면 연구와 분석 방법, 장비 등 많은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 관심이 거두어지지 않도록 저 역시 할 수 있는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Safety Talk

“어린이 호흡보호구 기준 마련 연구 수행”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김현욱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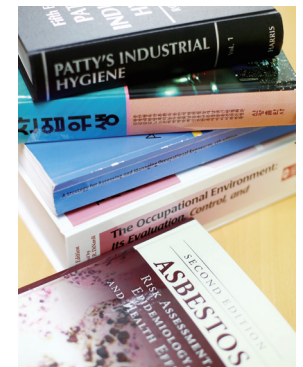
최근 나빠진 공기 질 문제로 황사용 마스크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황사와 미세먼지는 다릅니다. 더 큰 문제는 국내에 어린이용 마스크에 대한 제작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른 기준에 맞추어 크기만 줄여 제작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직접 학교 등 교육현장을 방문해 6세부터 13세에 해당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3D 스캐너로 얼굴 크기와 모양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기준을 마련해 식약처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가톨릭대학교 김현욱 교수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기여 활동



- 1993년 노동부의 직업병예방을 위한 학술연구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작업환경 측정의 문제 및 허용농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책개선에 기여
- 2000년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에 의한 업종별 위험을 구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2004년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
- 2005년에 노동부의 화학물질 노출기준 재개정 영역을 수행하여 노출기준을 개정하는데 일조
- 2006년 안전보건공단에서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연구와 환경부의 백석면 사용실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우리나라 석면관리 및 제반 연구의 기초를 마련
- 2013년 한국호흡보호구 학회를 설립하여 호흡보호구의 연구·개발 관리 등 전문적인 역할 기관 구축
- 2014년부터 안전보건공단 비상임 이사로 활동 중
- 현재, 보건용 마스크 인증시험법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 수행



02

산업포장

안전보건 원칙이 만든
행복 일터



024

한미정밀화학(주) 장영길 대표이사

출근한 모습 그대로 퇴근할 수 있는
행복 일터

030

(주)영우 이용주 대표이사

무방심(無放心), 일직심(一直心)
원칙으로 일군 안전 일터

036

(주)케이씨씨 여주공장
이신영 안전환경팀장

안전에 없는 단어, 타협과 양보



04
산업포장

한미정밀화학(주) 장영길 대표이사 출근한 모습 그대로 퇴근할 수 있는 행복 일터

한미정밀화학은 약품의 가공 전 단계인 원료의약품(API)을 제조하는 회사다. 직원 안전을 경영 최우선에 두고 무재해 7배수(자체 인증, 공식적으로는 5배 인증)를 달성하며 안전보건 문화 정착의 목표를 실천해나가고 있다. 장영길 대표이사의 안전원칙 첫 번째는 '출근한 모습 그대로 퇴근하는 일터'가 되는 것. 그래서 오늘도 제조 현장을 돌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소재지
경기 시흥시
경제로 59



업종
제조업/도매



직원수
260명
(경영진 3명 포함)



2016년 산재예방 투자액
8억 원



특징
안산·시흥 지역에서
유일한 PSM
P등급 획득



홈페이지
www.hanmifc.co.kr



전화번호
031-499-2541

꼼꼼한 안전 전담부서 EHS팀 운영

1984년에 설립된 한미정밀화학(주)은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서도 항생제 분야의 품질력을 인정받은 원료의약품 전문 회사다.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제약산업 선진국의 의약품 제조 과정과 품질관리 기준인 GMP 실사에서 승인을 받아 30여 개국에 원료의약품을 수출하며 국제적인 경쟁력도 입증했다. 장영길 대표이사는 이런 회사의 모든 성장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로 '안전'을 꼽는다. 오른쪽 손목의 흉터를 어루만지며 '안전경영'을 결심하게 된 계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대학원에서 학위과정 중 실험하다가 실험자재가 터지면서 손목 부위를 다쳤답니다. 그때는 그런 일들이 비밀비재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죠. 연구실 안전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구축되었으면 어땠을까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았어요. 한참 뒤, 뉴스에서 구미 불화수소 누출 사고와 그 외에 몇 건의 화학안전사고를 접하고 나서 안전은 생명을 살리는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 사람의 인생과 한 회사의 운명을 바꾸는 일의 시작엔 '안전'이 있다고 자각하게 되었어요."

오른쪽 손목의 흉터를 볼 때마다 직원과 회사를 위한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게 된다는 장영길 대표이사는 직접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도 수행하기 시작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무재해 운동은 현재까지 13년 2개월간 지속하며 무재해 7배수(자체, 5배 인증)를 달성하기도 했다. 또한 환경 보건 안전을 담당하는 EHS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총 매출의 5%인 45억 원을 오로지 안전을 위해서 투자하는 등 안전보건문화 정착을 위한 자원을 아끼지 않았다.

EHS팀은 안전(PSM), 보건, 환경(대기, 수질), 화공, 전기, 소방(위험물), 기계 등 분야별 전공자들로 인력을 구성해 제조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예방과 대응, 그리고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원료의약품을 제조하는 현장 근로자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파우더 원료 취급 중에 발생하는 분진환경 테스트, 사업장 석면함유량 검사,





소음발생지역 측정, 국소배기장치 배풍량 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저의 안전 첫 원칙이 자 소신은 직원들이 출근한 모습 그대로 퇴근할 수 있는 안전현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원칙에 있어서는 깊고 넓고 꾸준히 제도를 정비하려 합니다. 직원이 건강해야 회사도 건강한 것이니까요.”

유일무이, 창의적 예방활동 ‘생·마·토’

한미정밀화학의 안전에 대한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예방과 교육이 이뤄져도 현장에서 직원들에게 활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 조금 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생·마·토’, 이른바 생각과 마음을 토의하는 회의체를 구성한 것이다. “제조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개인 보호구 착용을 준수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보안경이에요. 그런데 안경 위에 보안경을 쓰는 직원들의 불편 사항과 안경을 쓰지 않던 직원들의 어지럼증 호소에 대한 이야기를 생·마·토를 통해 듣게 되었어요.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이제는 직원 개개인의 시력에 맞게 맞춤 제작하여 도수형과 실용형 두 가지 형태의 보안경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진행되는 생·마·토는 팀별, 직급별로 나눠 EHS팀과 1:1 면담으로 진행된다. 취합된 애로사항들은 장영길 대표이사과 임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생·마·토는 오로지 안전의, 안전을 위한, 안전에 의한 한미정밀화학만의 창의적 예방활동으로 거듭나 현장의 사소한 위험 요소를 제거해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고 있다.

재해의 사각지대에 쉽게 놓이는 지게차 운전자를 위한 특별안전보건 교육 16시간 운영과 직원이 직접 분기별 안전보건환경을 포함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선정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CIQ(Creative Individual Quarter) 제도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안전문화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며 자연스럽게 생활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전활동을 펼치고 있다.

함께 안전, 함께 성장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협력사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자연스레 품질력으로 빛난다. 협력사 공생협력 사업을 통해 하도급 업체를 관리하는 한미정밀화학은 10여 개 업체를 선정하여 매년 2회 이상 방문 점검을 한다. 수급사가 작업자들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하는지,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후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현장의 작업환경에 대한 개선점은 없는지에 대한 위험성평가 등이 주를 이룬다. “수급사의 작업자들도 결국은 한미정밀화학의 직원이에요. 작업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면 우리 품질도 자연스레 빛이 나죠. 그래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수급업체를 지원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인정받아 2016년 고용노동부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 결과 상위 10%만 받을 수 있는 A등급을 획득한 한미정밀화학 장영길 대표이사. 그는 더 넓은 공생을 위해 시동을 걸고 있다.

“글로벌 기업과 협력 시 그들의 높은 안전기준 요건에 놀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근접한 회사의 화재를 어떻게 예방하고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디테일한 항목이 존재할 만큼 깊고 섬세합니다. 저희 한미정밀화학도 글로벌 제약사들로부터 전문 EHS 시스템을 도입하고 수용하여 국제 기준을 넘어, 안전에 있어서는 한국의 리더 기업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Safety Talk

“직원을 위한 안전이 회사를 위한 안전”

한미정밀화학㈜ 장영길 대표이사

직원의 안전이 곧 회사의 안전이고, 직원의 건강이 회사의 건강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13년 2개월 동안의 무재해 7배수 달성이 기쁜 이유는 직원들의 안전의식도 그만큼 높고 견고했음을 방증하기 때문입니다. EHS 전문 인력 양성과 지원, 개인 맞춤 보안경 지급, 근골격계 질환 예방 아침 체조와 같이 앞으로도 직원들을 위한 맞춤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입니다. 회사는 직원을 위한 안전교육과 제도적 뒷받침을, 직원들 상호 간의 안전을 행해주는 상호 안전 피드백으로 사람 중심 경영, 안전 제일주의 한미정밀화학이 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한미정밀화학(주)의 산재예방 활동

한미정밀화학(주)의 산업재해 현황

0

2014년

0

2015년

0

2016년

0

2017년 현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한미정밀화학(주) 경영 목표
기본과 원칙 준수,
안전보건문화 정착



안전보건경영체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선임교육 이수완료),
사내 안전보건교육 및 평가 적극적인 참여,
산업안전보건환경위원회 및 EHS TFT팀 운영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OHSAS 18001,
ISO 14001 인증(2016년)



안전경영 시스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
사업 전체의 위험성평가를 통한 개선 권고사항 이행,
매년 경영목표에 안전보건 목표를 선정하여 이행,
EHS 안전보건 관련 SOP 63종 구축

안전보건 활동



총괄 현황
• 법정 안전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 안전관리담당부서장(EHS팀장): 1명 /
관리감독자: 15명 / 안전담당자: 7명
• 안전보건교육:
정기 안전보건교육 인터넷 이러닝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직무 관련 교육



원·하청 상생협력
• 원·하청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2014년 ~ 2016년)



분야별 활동
• 산업안전보건환경위원회 운영 활성화
• 근로자 근골격계 예방을 위한 매일 아침체조 실시
• 팀별/공정별 비상 시나리오 작성 및 훈련 실시
• 관리감독자/EHS팀 합동 안전보건 점검 참여
• '아차사고 및 안전보건 개선 공로 근로자'
표창 수여, 근로자 참여 유도



우수 사례
• 매년 매출액의 5% 이상 EHS 시스템 구축 위해 예산편성
• 직원 수 약 4% 이상 EHS 전문인력 양성 및 적극 지원
• 전 근로자 개인 보안경(도수형, 실용성) 지급
• 지게차(3톤 미만) 운전자에 대한 자체 면허증 발급 제도 운영
• 월 1회 이상 안전보건 자문기관 순회 점검 활동

성과 및 기타사항



주요 성과
• 무재해 5배수 달성(2000.1.1~2012.1.10)
• 고용노동부 노사 문화 우수기업 선정(2010년)
• 대한민국 안전대상 우수기업상
(소방방재청, 2012년)
• 경기환경그린대상 우수상(2013년)

• 고용노동부 PSM 이행상태 평가 P등급 획득
(2015년)
• 여성 R&D 인력 활용 우수기업 산자부 장관 표창
(2016년)
• 고용노동부 협력사 공생협력 경기도 A등급 획득
(2016년)



05
산업포장

(주)영우 이용주 대표이사
무방심(無放心), 일직심(一直心)
원칙으로 일군 안전 일터

2017년 3월, 쌍용자동차(주) 협력업체 최초로 무재해 10배수를 달성한 (주)영우는 안전원칙을 무방심(無放心), 일직심(一直心)에 두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방심하지 않고, 안전원칙을 꾸준히 지키는 것만이 무재해 일터를 이어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직원 모두가 '사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28번길 12


업종
서비스/제조업


직원수
77명
(경영진 1명 포함)


2016년 산재예방 투자액
1,478만 원


특징
쌍용자동차(주)
협력업체


전화번호
031-610-3924

사람 최우선, 안전 최우선
2002년 1월 설립한 (주)영우는 쌍용자동차(주) 협력업체로 초창기 5년 동안은 수출용 시트를 만들었다. 수출이 감소하면서 조립업체로 전환했고, 쌍용자동차(주)가 순탄치 않은 시기에도 흔들림 없이 직원들의 무재해 일터를 지켜왔다.
“사업 초기엔 저도 안전개념이 부족했어요. 그러다가 인근 회사에서 발생한 사고(직원 팔이 잘려 나가는)를 접하고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고를 당한 직원은 재기 불능에, 영구 장애를 안게 됐고, 회사는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겪어야 했지요.”
한 사람의 불행과 한 회사의 금전적 손실이 남의 일로 여겨지지 않았던 이용주 대표는 가장 인간적인 고민으로 대안을 마련했다. 우선순위를 ‘일’과 ‘성과’에서 ‘사람 최우선’과 ‘안전 최우선’에 둔 것이다. 회사는 곧바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기 위해 매뉴얼과 지침서를 만들어 현장에 적용했다. 직원은 그 매뉴얼과 지침서를 안전원칙으로 삼아 철저히 지켰다.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요통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매일 아침 5분 국민체조, 나와 동료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방심하지 말자는 내용이 담긴 10개의 안전구호 제창, 작업 환경과 관련한 일일 안전점검표 작성 등을 꾸준히 해오면서 회사와 직원은 안전에 관련한 자연스럽게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거기에 신뢰와 믿음까지 더해져 언제 닥칠지 모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는 힘까지 얻었다. 회사가 ‘사람 최우선’, ‘안전 최우선’을 우선순위에 둘 때 직원은 자신의 이익보다 ‘회사 최우선’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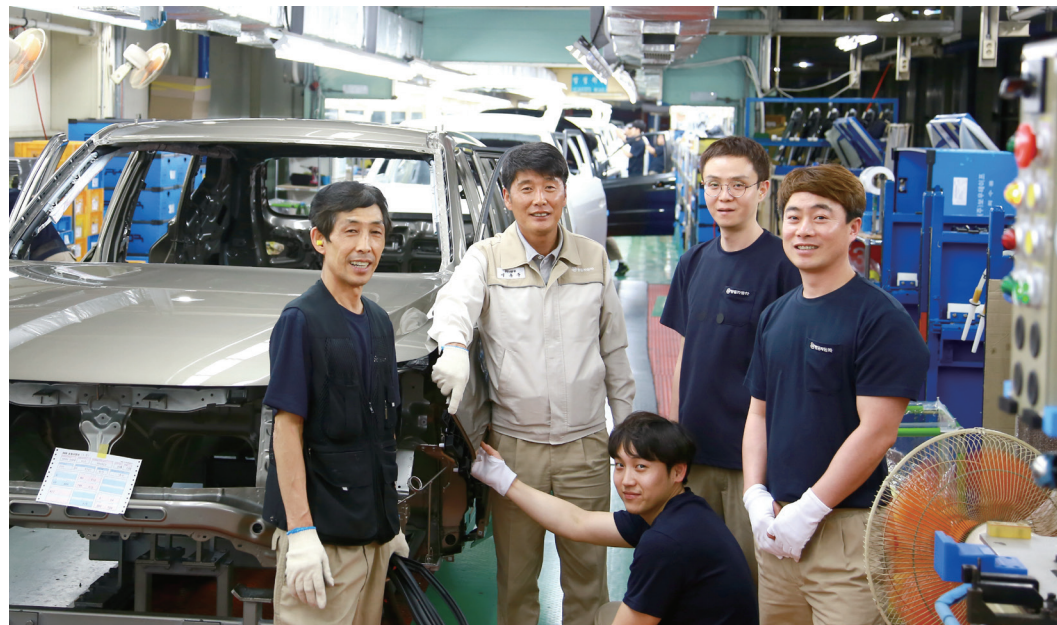
즉각 수렴, 즉각 조치

“안전과 관련한 건의사항이 있으면 즉각 수렴해서 조치합니다. 안전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타이밍을 놓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대부분 안전사고가 사소한 부주의에서 일어나듯 안전예방도 사소한 조치로부터 비롯된다고 여기는 이용주 대표. 당장 급하지 않아도 즉각 조치를 취한다. 최종 결재권자인 회사 대표가 그것을 미루거나 외면하는 순간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작업장에 들어서기 전 ‘통행 안전주의’ 문구가 선명하게 적힌 표지판을 바닥에 설치해 직원들이 더욱 조심성을 갖게 했다. 장시간 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통을 고려해 ‘안전 보조의자’를 외부용과 내부용으로 나눠 자체 제작했다. 그밖에 안전펜스, 도구(장비) 진열대 교체 등 모두 즉각 수렴해 조치한 것들이다. 언뜻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안전생활화를 통해 ㈜영우는 ‘무재해 10배수 달성’, ‘공생협력 프로그램 A등급 상위 10%’라는 큰 성과를 얻었다.

쌍용자동차㈜ 공생협력 프로그램 A등급 상위 10%

“쌍용자동차㈜와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이런 것까지 하나 싶었어요. 매달 안전보건 공생협력협의체 회의도 해야 하고, 준비 문서자료도 많았죠. 그런데 몇 번 참여해 본 후 생각이 달라졌어요. 협력업체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영우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인 쌍용자동차㈜ 공생협력 프로그램과 산업안전팀 안전담당자의 도움으로 그동안 준비만 해왔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 덕분에 타 협력업체와의 안전업무 공유는 물론, 노사합동 점검을 통한 설비 및 장비 보완, 기타 안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전달하여 개선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도 생겼다. 소극적인 참여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쌍용자동차㈜의 지침만 따르던 협력업체에서 전사 마인드를 갖춘 협력업체로, ㈜영우만의 지속적인 무재해 일터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공생적인 무재해 일터로 바뀌었다. 쌍용자동차㈜ 공생협력 프로그램 A등급 상위 10%라는 결과는, 앞으로도 ㈜영우에게 값진 결과이자 보람으로 기록될 것이다.

Safety Talk

“오너 마인드가 곧 무재해의 시작”

㈜영우 이용주 대표이사

무재해 10배수 달성은 13년 6개월에 걸친 대장정이었어요. 꾸준히 안전원칙을 지켜온 결과입니다. 저는 오너 마인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매일 현장에 나가 직접 안전을 살피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더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스마일 명찰' 제도를 실행합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스마일 명찰'을 달아 동료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본 동료들은 몸과 마음을 헤아려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우는 안전생활화는 물론 비정규직 제로, 노동시간 준수, 퇴직연금 보장 등을 실천하며 사람 중심의 따뜻한 중소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주)영우의 산재예방 활동

(주)영우의 산업재해 현황

0

2014년

0

2015년

0

2016년

0

2017년 현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주)영우 안전원칙
무방심(無放心),
일직심(一直心)



안전보건경영체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운영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인증
(2013년)

안전보건 활동



총괄 현황
• 안전(대한산업안전협회),
보건(주중양안전보건연구원)
외부전문기관 연계
• 안전관리담당:
관리감독자 4명/
안전보건담당자 1명
• 안전보건교육:
매월 전 직원 대상
2시간 운영



원 · 하청 상생협력
• 쌍용자동차㈜ 협력업체로
원 · 하청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 2012년 A등급, 2013년 B등급,
2014년 A등급, 2015년 A등급,
2016년 A등급(상위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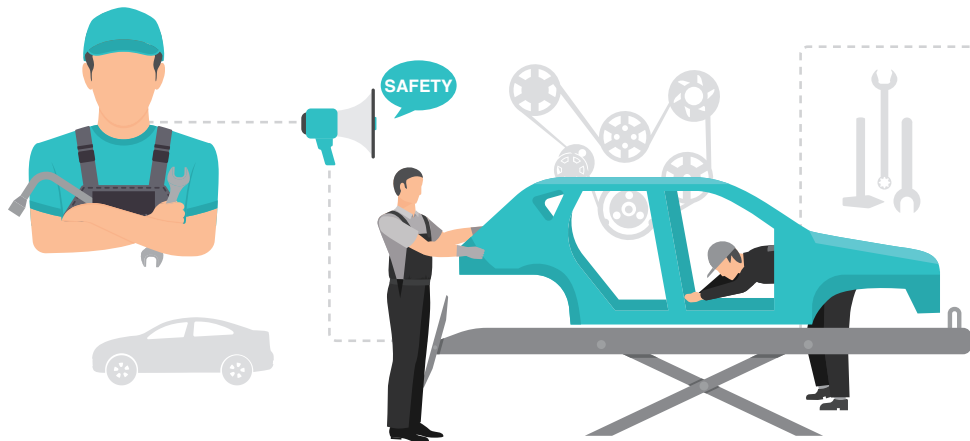
우수 사례
전 사업장 1일 1회
안전패트를 실시,
물류장비 작업 전 및
일상 안전점검 실시



안전분야 활동
매일 작업시작 전 아침체조,
안전구호 제창



보건분야 활동
뇌 · 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평가,
직무스트레스 조사



성과 및 기타사항



무재해 10배수 달성
(2003.9.4 ~ 2016.1.12)



06

산업포장

(주)케이씨씨 여주공장 이신영 안전환경팀장

안전에 없는 단어, 타협과 양보

건축용 유리, 자동차 유리 등을 생산하는 (주)케이씨씨 여주공장에 재직하고 있는 이신영 안전환경팀장. 1997년 1월 (주)케이씨씨에 입사해 연양공장, 김천공장, 여주공장을 거치며 안전환경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특히 안전환경팀장으로 취임한 이후 2016년에 산업안전 기사 자격을 취득할 정도로 '안전'에 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실행하는 그다.



소재지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541



업종

제조업



직원수

483명
(경영진 3명 포함)



특징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지원



홈페이지

www.kccworld.co.kr



전화번호

031-880-3017

바톤을 잇는 무재해 현장 만들기

입사 이래로 이신영 안전환경팀장의 행보는 한결 같다. 안전은 타협과 양보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굳건히 세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내실 있는 안전관리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약 48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여주공장은 2007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무재해 현장으로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로 안전 분야에서만 21년을 근무했어요. 쭉 (주)케이씨씨에서만 근무했는데, 2015년 2월에 여주공장 안전환경팀 팀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9년 6개월동안 안전사고 없는 무재해 현장 기록을 갖고 있다 보니 각별히 신경을 쓰게 되더군요.”

이신영 안전환경팀장은 중대산업 사고 예방을 위해 과감한 시설 투자, 담당자 직무향상 교육, 협력사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 정보 전달 교육, 안전규정 및 지침 제·개정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안전활동을 추진해왔다. 2015년에는 공정안전관리를 위해 컨설팅 및 TFT를 운영하였고, 이를 통해 공정안전관리(PSM) 등급이 'M+'에서 'S' 등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무엇보다 각 공정별로 잠재된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위험성평가를 세분화했으며, 근로자를 참여시켜 유해·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관리감독자의 현장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2회/일) 당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관리감독자의 주야간 순찰 실시 및 지적된 사항을 100% 시정조치하였다. 작업 위험성평가는 수시로 진행하며, 정기 위험성평가와 화학물질 위험성평가는 연 1회, 공정안전 위험성평가는 4년에 1회 실시하고 있다. 철저한 위험성평가를 통해 여주공장의 안전의식은 늘 주위의 모범이 되고 있다.



안전에는 반복교육이 왕도

늘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안전 제일을 실천하고 있는 이신영 안전환경팀장은 수준 높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안전보건 분야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 및 제안을 쉽고 빠르게 등록할 수 있도록 통합제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제안을 모니터링한 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개선결과를 철저하게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장작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안전보건 개선 아이디어 및 개선 실시 등을 등록하였고, 회사에서는 다양한 시상으로 케이씨씨 여주공장의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총 4,057건이 등록됐고, 100% 개선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사내외 11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정기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고,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으로 협력업체의 안전활동 참여 유도 및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케이씨씨 여주공장만의 위험성평가 기법을 협력사에 전수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도 소홀함이 없다. 2016년에는 여주시보건소와 건강증진사업 MOU를 체결했고, 금연 프로그램 운영, 건강계단 설치, 출장식 헌혈의 집 운영, 건강식단 조성 등 작업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제가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은 철저한 교육과 현장에서의 실행입니다. 관리감독자의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본사 주관 각 사업장의 교차 안전점검을 실시해 잠재 위험요소를 적기에 발견하고, 실시간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침이 없다. 특히 최초 특별교육 후 10년 이상 경과자를 대상으로 안전 리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보건 수첩 및 외부 방문자를 위한 리플릿을 제작해 위험 정보, 비상연락망, 비상대응 행동, 피난 안내 등 상세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늘 안전을 공부하는 사람

안전의 중심엔 사람이 있다.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 목적은 근로자 개인은 물론 그의 가족, 회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다. 그렇기에 이신영 안전환경팀장이 생각하는 안전의식과 기준은 늘 높은 곳을 향해 있다. “안전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16년에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안전 분야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주관 산재예방 결의대회,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벤치마킹 등 이신영 안전환경팀장은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안전에 대한 타협과 양보 없는 원칙, 그리고 노력들은 여주공장을 무재해 현장으로 만들어낸 제1의 가치이다.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2년동안 안전시설물, 안전보호구 구입, 교육과 각종 컨설팅, 현장 작업자의 건강 검진 등 과감한 안전 투자를 통해 무재해 현장을 만들어온 것이지요, 앞으로도 10년, 20년 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 임직원 모두가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 곳곳에서 생산된 유리들이 마치 이런 마음을 헤아리는 듯 투명하게 반짝인다. 그 중심에 여주공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신영 안전환경팀장이 있고, 그를 뒷받침하는 회사의 노력이 있다. 앞으로도 케이씨씨 여주공장은 지속성장 가능한 무재해 현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Safety Talk

“지속가능한 무재해 현장 만들기에 앞장 서겠습니다”

☞케이씨씨 여주공장 이신영 안전환경팀장

9년 6개월동안 무재해 사업장으로 이끌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뿐만 아니라 임직원 모두가 하나되어 ‘안전’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구호뿐인 안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과감한 안전투자를 결정한 회사의 몫도 큼니다. 안전분임조 활동 시상이나 안전개선제안 시상과 같은 통합제안시스템 운영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10년을 넘어 지속 가능한 무재해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주)케이씨씨 여주공장의 산재예방 활동

(주)케이씨씨 여주공장의 산업재해 현황

0

2014년

0

2015년

0

2016년

0

2017년 현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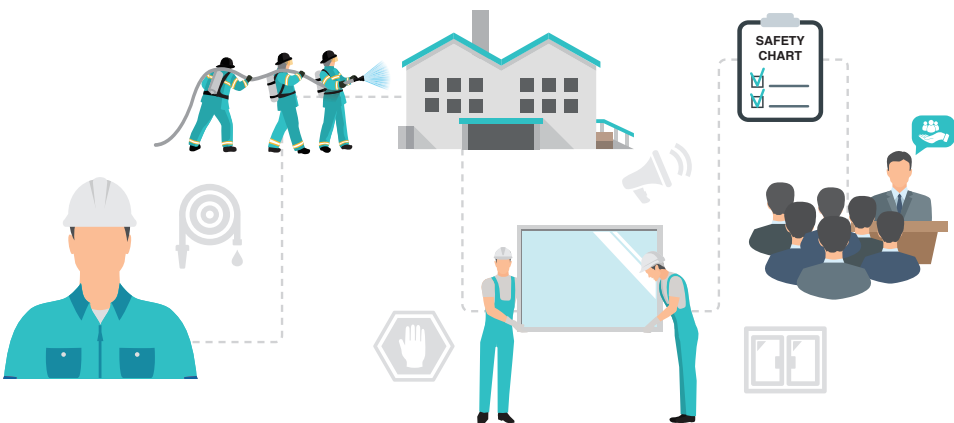
안전보건경영체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노사협의체 운영



산업재해 대응체계

자체소방대 및 화학물질 방제반 운영,
Paging 및 긴급 SMS 발신 체제



안전보건 활동



총괄 현황

- 법정 안전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 안전관리담당부서장: 1명/
관리감독자: 94명/
안전담당자: 3명
- 안전보건교육:
10개 교육 과정 운영



원·하청 상생협력

원·하청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및
노사협의체(매월) 운영



안전분야 활동

- 안전예산: 10억 원
- 주요 활동:
분야별 위험성평가 실시
(공정 위험성평가,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작업 위험성평가),
안전보건 제안 프로그램 운영 및 시상,
안전보건 정보 매체 제공
(안전보건 수첩 및 리플렛), 장기근속자
안전보건 리마인드 교육 실시 등
- 주요 사업:
월별 무재해 캠페인,
월간 안전 장인 선발,
'아차' 사고 경진대회 등



보건분야 활동

- 보건예산: 3억 원
- 주요 활동:
금연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출장식 한철의 집 운영,
저염 식단 제공,
건강계단 설치, 특수 분야 근로자 진단,
작업환경측정 등



우수 사례

- 안전보건제안 프로그램 운영,
계열사 간 안전 Staff 교차 안전진단,
안전보건정보 매체 활성화,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금연/
한철/저염식단 제공/건강계단 설치)

성과 및 기타사항



주요 성과

- 공정안전관리(PSM) 등급 상향(S등급, 2015년)
- 건강증진 프로그램 MOU 체결(여주시 보건소)
- 안전보건 제안 등록 및 개선(연간 2,000건 이상)



안전문화 확산

- 안전보건 주제 공모전
(포스터/슬로건), 안전보건
제안 인센티브 지급



사회적 기여 활동

- 1사 1촌 자매결연 및 활동,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소외 계층 무한돌봄 활동

03

대통령 표창

모두가 함께 만드는 안전문화



044

대성기업(주) 김영명 상무이사

안전은 의식하기 전에 노력

048

중흥토건(주) 서우진 상무이사

전 직원이 안전전문가로 나서
'중대재해 제로'에 도전

054

현대산업개발(주) 경기대전4지구아파트
신축공사 이용상 현장소장

안전의 기초는 '기본 엄수'



060

OCI(주) 익산공장
오창우 보건관리자

시스템 너머에서 꿈꾸는 안전현장

066

GS건설(주) 최수환 시스템파트장

안전은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운 문화'

072

(주)서연이화 김향미 보건관리자

기업 역량의 제1 전제는
근로자의 건강

078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광일 실장

매일 매일이 안전 점검의 날,
안전보건의 생활화 실천

082

한국경영자총협회 임우택 본부장

안전보건을 향한
삼위일체의 노력과 조율

086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기식 안전보건정책연구실장

패러다임 바뀌어도
'한 우물 정신' 그대로



대성기업(주) 김영명 상무이사 안전은 의식이기 전에 노력

무려 8,080일에 빛나는 대성기업(주)의 무재해 21배 인증은 안전이 다짐이나 각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나는 노력이어야 한다는 것을 몸소 실천한 것이다. 이는 대성기업 노사의 협력과 투혼이 빛을 트로피다. 매일 조금 더 안전해지려는 소소한 노력들이 쌓여 오늘의 ‘무재해’ 문화를 만들었다.

‘안전 無’가 아닌 ‘사고 無’를 위한 실천

무재해 22배수 달성을 눈앞에 둔 대성기업(주)의 김영명 상무이사는 안전이 관념적인 의식이기 이전에 구체적인 실천이요, 노력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안전 최우선’을 내걸고 본격적인 안전경영에 시동을 걸기 시작한 후부터 지금까지 사무실에서, 현장에서 그가 한결같이 강조해온 것은 안전을 향한 노력이다.

“우리가 지키지 않는 순간 안전은 ‘無’가 됩니다. 사고가 無가 되어야지, 안전이 無가 되어서는 안 되죠. 가장 기본적인 청소부터 현장 상태나 작업 하나 하나까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음으로 안전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1976년 12월 1일 설립된 대성기업(주)은 포스코의 외주 파트너사로 제강공장에 필요한 각종 스크랩(SCRAP)을 절단, 가공, 상차 및 온도조절용 냉각제를 생산, 공급해온 스크랩 전문업체다. 포항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김영명 상무이사는 1976년 입사해 현장작업관리 감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다 2000년부터 회사를 무재해 사업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무안전 업무를 시작했다. “안전 최우선과 노사화합이라는 우리 회사의 경영 방침에 부합하고 모회사인 포스코에도 적극 협력하기 위해 무재해 사업장 만들기엔 전격 돌입하게 되었죠.”



10대 안전철칙과 굿 드라이버 운동

김영명 상무이사의 지휘에 따라 대성기업의 안전보건 활동은 서서히 체계를 갖춰가기 시작했다. 먼저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사고 유형을 집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가 작업 전 반드시 숙지하고 작업 과정에 지켜야 할 ‘10대 안전철칙’을 만들었다. ①안전보호구 착용, ②계단 통행 시 핸드레일 사용, ③차량의 모든 좌석 안전벨트 착용, ④건널목 일단정지 및 제한속도 준수, ⑤안전장치 임의해제 금지, ⑥작업 전 TBM & 작업 중 지적 확인, ⑦고소작업 안전벨트 착용, ⑧가동설비 임의 접근금지, ⑨전기 작업 전 전원차단 및 확인, ⑩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골자로 한 내용이었다. 노측의 자구적 노력에 화답해, 사측에서도 과감한 시설투자로 산재예방에 힘을 보탰다. 한편, STOP 표지판 앞에서는 일단 정지하고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며 시속 40Km로 주행하고 모든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자는 ‘굿 드라이버’ 운동도 펼쳤다. 부주의에 따른 현장 주변의 크고 작은 차량사고가 빈번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었다. 작업 전에는 반드시 TBM 미팅을 거쳐 사전에 안전조치를 한 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는 한편, 전 직원이 순번을 정해 주, 야간에 각각 1명씩 안전지킴이가 되는 1일 안전지킴이 활동도 펼쳤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힘을 합쳐 산업재해를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성기업은 지난해 공단으로부터 무재해 21배 인증패를 수여 받았다. 199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들이 달성한 무재해 일수는 무려 8,080일이다.

배려, 존중, 책임이 만든 ‘사고제로’ 안전문화

배려, 존중, 책임이라는 대성기업의 사훈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사 화합을 이끌어냈다. 대성기업은 매월 대표이사 주재로 관리감독자 이상 안전회의를 실시한다. 관리자의 안전의식부터 변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인 김영명 상무이사가 매주 월요일마다 주관하는 주간 안전회의에서는 안전현황과 주요 이슈들이 발표, 공유된다. 소통은 모든 안전이슈에 빠질 수 없는 사항이다. 간부 사원들에게 책임구역을 지정해준 책임관리제는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직원의 소리를 생생히 들을 수 있게 해준다. 자칫 멀어지기 쉬운 둘 사이를 ‘안전’이라는 의제로 묶어 간극을 좁힌 것이다. 매월 안전모범 사원을 선발해 이들을 대상으로 연말에 최우수 안전모범사원을 선정, 동기 부여를 위해 해외 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직원 스스로가 행동하는 자율 안전관리 사업장이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 외에도 팀워크를 다지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분기별로 치러지는 노사합동 이벤트만 해도 그렇고요. 곧 3분기에 안전 캠페인이 치러질 텐데, 그때가 되면 다시 한 번 무재해 8,080일을 달성한 직원들이 연출하는 놀라운 합심(合心)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직원의 안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회사, 그리고 안전수칙을 지킴으로써 나와 내 동료들의 안전까지 지켜낸 현장 직원들. 올 연말 최우수 안전모범사원상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고 ZERO 사업장을 일군 모두에게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한눈에 보는 대성기업(주)의 산재예방 활동

대성기업(주)의 산업재해 현황

0

2014년

0

2015년

0

2016년

0

2017년 현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CEO 안전 메시지(안전 지침)
배려, 존중, 책임의 완수로
무재해 사업장 구현 및 안전보건경영 방침 개시



안전보건경영체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및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제도 운영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인증(2007년)



산업재해 대응체계
매 분기 비상대응 훈련 및
연말 종합방재훈련 실시



총괄현황
• 안전관리담당부사장: 1명/
관리감독자: 15명/
안전담당자: 1명
•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직무(위탁), 정기,
특별안전, 근골격예방 및
위험성평가교육



원·하청 상생협력
POSCO의 협력업체로
원·하청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우수 사례
10대 안전철칙 지키기 및
굿드라이브 운동, 관리감독자
작업 단위별
책임 안전 관리제 시행



안전분야 활동
• 안전예산: 13억 원
• 주요 활동:
1일 안전지킴이 활동,
잘못된 관행 토론회, 작업표준 운동회
• 주요 사업:
신년 안전가원제, 무재해캠페인,
월 안전 모범사업 선발,
분기별 팀파워 활동



보건분야 활동
• 보건예산: 1억 원
• 주요 활동:
직원 및 가족 독감예방 실시,
근골격계질환 예방 스트레칭,
특수 분야 근로자 진단,
휴게실 및 샤워실 운영, 당구장 설치 등

성과 및 기타사항



주요 성과
무재해 21배수 달성
(1994.6.3 ~ 2017.3.3)



안전문화 확산
경북 동부
안전관리자 협의회 정회원으로서
동부지역 안전문화 확산 홍보



사회적 기여 활동
지역협업체 통한
중소사업장 기술 지원 활동,
설 연휴 양로원 방문 및 불우이웃 돕기 등
경북 동부 안전관리자 협의회 정회원으로서
로 활동 및 각종사회 봉사활동으로
법무부 장관상 수상(2016년)



08
대통령 표창

중흥토건(주) 서우진 상무이사 전 직원이 안전전문가로 나서 ‘중대재해 제로’에 도전

호남을 대표하는 건설업체에서 50대 건설업체로 급부상한 중흥토건은 2014년 안전을 전담하는 안전부를 창설하고, 안전경영 체계를 다졌다. ‘보호구 착용 철저’, ‘작업 전 안전점검’, ‘작업 후 정리정돈’의 무재해 3대 실천사항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전 직원을 모두 안전전문가로 육성하고 있다.


소재지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나주호로 442-129


업종
건설업


직원수
310명
(경영진 미포함)


2016년 산재예방 투자액
158억 원


특징
전 직원을
안전전문가로 육성


전화번호
062-510-2109

50개 현장을 누비며 펼치는 안전점검과 교육

“무재해로 나가자!” “좋아! 좋아! 좋아!”, “오늘도 확인!” “좋아! 좋아! 좋아!” 중앙 부처 이전과 그에 따른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도시 전체가 거대한 건설현장을 이루고 있는 세종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안전의식을 다지는 직원들의 구호가 힘차게 울렸다. 분기마다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중흥토건 안전부 서우진 상무이사가 안전 구호를 선창할 때마다 직원들의 “좋아! 좋아! 좋아!”라는 후창이 뒤따른다.

중흥토건은 호남지역의 대표적인 건설업체인 중흥건설의 주력 계열사다. 1989년 설립 이래 50대 건설기업으로 도약한 중흥건설그룹은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최근 세종시에 주택공급 사업을 전개하며 급성장했는데 세종시에만 16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고 있다. 1990년 중흥건설그룹에 안전관리자로 입사한 서우진 상무이사는 그룹의 안전관리자 1호로서, 안전 불모지인 중견 건설업체에서 전 직원을 안전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해 26년 동안 안전 외길 인생을 걸어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해 항상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현장을 점검할 때도 대중 훑어보지 말고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추락·전도·붕괴·낙하가 우려되는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중흥토건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호구 착용 철저’, ‘작업 전 안전점검’, ‘작업 후 정리정돈’의 무재해 3대 실천사항 외에 안전에 대한 관심을 추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임원이 전국 50여 개 현장을 찾아 다니며 손수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기에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더욱 고취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안전부 창설로 안전 전문성 제고

중흥그룹은 지난 2014년 안전을 전담하는 안전부를 창설하고, 체계적으로 안전경영 체제의 기반을 다졌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현재 중흥그룹 안전·보건관리자 106명 가운데 92명이 정규직이다. “과거에는 공사 기간에 따라 계약직으로 채용했지만 담당자들이 보다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정규직 채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내 안전관리자의 위상이 제고되고, 우수한 실력을 갖춘 베테랑 안전관리자들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100명이 넘는 안전부는 매년 워크숍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각 부서 워크숍 때도 안전교육 및 사고 사례를 전파하고 있다.

2016년에는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도 제정했다. KOSHA18001 같은 업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있지만, 보다 현장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체 매뉴얼을 제정하게 된 것. 현장에서는 안전감시단을 운영해 현장의 위험작업을 감시하고 위험요소를 점검해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현재는 3개 현장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조만간 전 현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네이버 밴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실시간 현장의 위험요소 정보를 공유하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안전 불감증과의 전쟁

서우진 상무이사가 처음 안전관리자로 일하던 1990년대만 해도 직원들의 안전인식은 매우 미흡했다. 점차 대형 건설업체 중심으로 안전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했지만 중소 건설업체들은 안전보다 작업 효율성이 우선이었다. 그러던 1993년, 서우진 상무이사는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서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하는 모습을 맞은편 건물에서 목격했다. 즉시 작업 중단을 감독자에게 지시했으나 미처 작업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외마디 비명과 함께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그 사고 이후 제가 한 발 더 빨리 움직이면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안전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은 총만 안 들었지 전쟁터와 같습니다. 순간의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언제나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공사현장. 하지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바로 세우고 있다면 무재해 달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중흥토건은 '중대재해 제로'에 도전하고 있다.

Safety Talk

“근로조건 개선해 안전한 일터 구축”

중흥토건㈜ 안전부 서우진 상무이사

월 1회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시행해 우수 근로자를 포상,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혹서기나 혹한기에는 무리하게 작업하지 말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근로자 휴게소를 설치했습니다. 휴게소 내에는 냉온음료 및 보온장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휴식을 취하면 사고 위험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작업 능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최근 현장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데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큼니다. 그래서 중국, 베트남 등 국가별로 통역사를 초빙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모두 안전전문가로 육성해 무재해 현장을 이룩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중흥토건(주)의 산재예방 활동

중흥토건(주)의 산업재해 현황

9

2014년

11

2015년

22

2016년

7

2017년 현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CEO 안전 메시지(안전 지침)

- 본사 및 전 현장 릴레이 선포식 개최 후 게시
- 1. 안전을 최우선하는 기업
- 2. 전 직원 안전전문가 육성
- 3. 중대재해 제로



- 안전보건경영체계
- 본사 안전부 창설로 자율안전 경영체제 기반 구축 (2014년)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개발 (2015년)



안전보건 활동



- 총괄 현황
- 본사 안전부(3명)/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각 현장 23명)/ 안전·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57명, 보건관리자: 12명)
- 안전보건교육 (분기 본사 임원진 현장안전교육, 월별 외부 교육기관 의뢰 현장 안전교육 외 다수)



- 원·하청 상생협력
- 원·하청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 자율안전컨설팅 프로그램
- 자율안전컨설팅 프로그램 참여



- 자율안전점검 및 교육컨설팅
- 자율안전점검 및 교육컨설팅 시행



우수 사례

- 본사 현장안전점검 및 임원진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실시
- 매년 안전부 워크숍 실시로 업무능력 배가
- 안전관리 상벌제도를 통한 우수현장, 우수협력업체 포상
- 위험성평가 정착: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및 관리
- 안전감시단 운영: 위험작업 상주 감시
- BAND 활용 실시간 현장 안전관리

- 법적 기준 외 건설장비 외부 검사기관 검사 의뢰
- 협력업체 CEO 현장점검 및 안전교육 제도화
- 권역별 사내 안전관리자 협의체 구성 및 상호 교차 점검 실시
- 현장별 차별화된 감성안전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열린 건강 관리실 개설을 통해 근로자 건강 상담 실시
- 각종 교육자료 개발

성과 및 기타사항



주요 성과

- 안전경영대상 우수상 수상(1998년)
- 다수 현장 무재해 1배수 달성
- 중건 건설업체에 자율안전경영체제 정착과 산재 예방
- 정규직 안전관리자 채용을 통해 안전관리자 위상 적립 및 육성에 기여



09

대통령 표창

현대산업개발(주) 경기태전4지구아파트신축공사 이용상 현장소장

안전의 기초는 ‘기본 엄수’

현대산업개발(주) 광주태전IPARK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핵심은 기본 지키기다. 22년간 여러 건설현장을 경험한 이용상 소장에게도 이곳은 ‘기본에 가장 충실한 현장’이다. 당연하지만 그래서 더 소홀하기 쉬운 기본을 매일 상기하며 철저히 지킨 결과,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일어나곤 했던 ‘아차 사고’들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다.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87번지



업종
건설업



직원수
240명
(관리자 17명 포함)



2016년 산재예방 투자액
10억 5,000만 원



특징
외국인 근로자
특별 관리 활동



전화번호
031-768-9064

작은 위험부터 철저하게 관리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에 위치한 광주태전PARK는 지하 2층 ~ 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총 7개 동 640세대로 조성됐다. 2015년 5월 첫 삽을 뜬 이래 오는 8월 말 입주를 목표로 한창 마무리 작업에 접어들었다. 공사 시작 이후 2년이 다 되어가지만, 현장은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하다. 현장 운영의 기본이 지켜져야 재해예방도 가능하다고 믿는 이용상 소장은 “공정률이 높아질수록 안전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상 소장이 첫 번째로 내세운 기본은 ‘정리정돈과 근로자가 우선하는 통행로 확보’다.

“사소한 위험요소를 내버려 두면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쓰레기와 자재가 방치된 현장에서 근로자가 안전하길 바랄 수는 없죠. 현장에 들어온 순간부터 안전을 끊임없이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 현장은 출입문에서 안전장비 미착용 근로자나 기초 안전교육 미이수자 출입을 막습니다. 간이 안전교육장도 수시로 운영해 안전의식을 높이고요. 간간한 출입자 관리 시스템으로 근로자는 물론 모든 현장 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강요가 아닌 배려와 소통으로

현대산업개발 광주태전PARK 건설현장의 또 다른 재해예방 중점 사항은 외국인 근로자와 건설기계에 의한 ‘사고예방’ 관리다. 일하다 다치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외국인이거나 신규 채용 근로자인 만큼, 외국어 더빙과 자막이 반영된 영상을 제작해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에도 만전을 기했다. 또, 외국어 표기 안전표지를 마련하고, 협력회사에는 통역 가능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 현장근무 중에도 언제든지 다른 근로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분 현장에서 외국인 작업자의 비중이 높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안전장치는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이는 외국인 작업자뿐만 아니라 현장 모든 작업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외국인 작업자들도 동일하게 안전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스스로를 이방인이 아닌 동료라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현장에서 먼저 근로자의 가치를 높여준다면 소속감과 애사심이 생겨 마음가짐도 달라지는 법이거든요.”

광주태전PARK 현장은 ‘전 직원 안전책임구역제’ 운영 및 협력업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작업확인제’를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는 노사합동 안전점검을 하고, 법적 선임 기준을 상회하는 안전관리자 추가 배치 등 안전을 위한 투자에 자원을 아끼지 않았다. 출근길 노사 합동 캠페인, 휴게실 확충 등 세심한 안전관리도 눈에 띈다. 알루미늄 거푸집을 해체할 땐 보안경과 무릎보호대 등 보호구를 지급해 사고를 방지하고, 동절기엔 보행자 통로에 부직포를 깔아 빙판 전도사고를 막았다. “특히 불량 건설기계로 발생하는 재해예방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장비전문가를 배치해 노후 건설기계는 현장 진입을 통제하죠.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타워크레인도 반입 전 공장을 방문해 사전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공정을 높아질수록 안전은 더욱 엄격하게

지금도 이용상 소장은 매일 현장 곳곳을 누비며 안전 수칙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위험 요소는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한다. “작업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둔해지거나 부주의해지기 마련이죠. ‘금방 나올 거니까!’라는 생각으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뭔가를 깜박 잊거나 말이지요. 모든 사고는 ‘아차’하는 순간 일어나고, 누구라도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모든 부주의는 무조건 ‘OUT!’입니다.” 철저하게 기본을 지킨 결과, 광주태전PARK 현장은 KOSHA 18001 우수현장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현대산업개발(주) 전체 현장 안전등급제 최고 등급인 S등급 유지는 물론, 올 2월에는 ‘2016년 현대산업개발 안전 우수현장’으로도 선정됐다. 기본이 지켜지지 않으면 시공 경쟁력도, 안전도 지킬 수 없다는 이용상 소장. 현대산업개발 광주태전PARK가 완공되는 순간까지 기본과 원칙 엄수로 무재해 현장을 완성해가길 기대한다.

Safety Talk

“말은 업무 달라도 안전은 함께 실천”

현대산업개발(주) 광주태전PARK 이용상 현장소장

아파트 건설현장은 작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공사예요. 초기 작업과 중간, 마무리 작업에 따라 작업자들의 변화도 크고, 여러 업체가 함께해 작업자 간 소통이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더욱 충분한 소통으로 서로의 작업을 인지하고 조율해야 합니다. 말은 일은 달라도 다 함께 완벽을 기하며 ‘100% 안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현대산업개발(주) 태전IPARK 신축공사 현장의 산재예방 활동

현대산업개발(주) 태전IPARK 신축공사 현장의 산업재해 현황

0

2015년

0

2016년

0

2017년 현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경영체계
각 협력사 별
안전전담자 지정 및
전담자 활동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인증
(2015년)



산업재해 대응체계
지정 병원 등록 및
각 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완료

안전보건 활동



총괄 현황

- 법정 안전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3명, 보건관리자: 1명)
- 안전관리담당부서장: 1명/
관리감독자: 총 10명/
안전담당자: 1명
- 안전보건교육:
10개 교육 과정 운영



원·하청 상생협력
원·하청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우수 사례
보추락방지 브라켓 사용,
알루미늄 거푸집 관련
사고 예방 활동,
안전확인카드 제도 도입



안전분야 활동

- 안전예산: 약 17억 원
- 주요 활동:
전담 안전시설물 설치팀 운영,
안전감시단 운용 등
- 주요 사업:
분기별 CLEAN 5 행사,
출근길 캠페인,
우수근로자 선정 및 포상 등



보건분야 활동

- 보건예산: 14억 원
- 주요 활동:
근골격계질환 예방 스트레칭,
이동용 건강검진 버스 운영(연 2회)
보건관리실 운영,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프로그램 실시 등

성과 및 기타사항



주요 성과

- 무재해 1배수 달성
(2015.5.15 ~ 2016.9.9)
- 현대산업개발 전체 현장별
안전등급제 운영(S등급 달성)



안전문화 확산

매월 5일 테마별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안전책임구역제 운영,
안전작업 확인제 운영, HOLD POINT 운영, 노사협의체 회의 활성화,
노사 합동점검 2개월 실시(1회/2개월)



10
대통령 표창

OCI(주) 익산공장 오창우 보건관리자

시스템 너머에서 꿈꾸는 안전현장

안전의 최우선 목표는 인명 존중. 사람의 생명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인도주의에 입각해 있다. 이러한 안전과 보건을 사람에게만 의지하게 하는 것은 과연 온당한 일일까. OCI(주) 익산공장의 오창우 보건관리자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입사 후 대부분의 시간을 안전보건 관련 업무에 할애했던 그의 단언은, 놀라울 정도였다.



소재지
전북 익산시
보석로 4길 107



업종
제조업(화학)



직원수
88명
(경영진 1명 포함)



특징
그린에너지,
화학소재 수출 비중이
70% 이상인
글로벌 기업



홈페이지
www.oci.co.kr



전화번호
063-830-7760

안전은 구호가 아닌 문화

“과산화수소를 제조하는 익산공장은 OCI 전체 공장 중 두 번째로 오래된 곳입니다. 1979년에 완공되었으니 상당히 오래된 공장이지요.” 올해로 입사 27년차를 맞은 오창우 보건관리자는 그 동안 익산공장에서 단 한 번도 큰 사고가 나지 않은 비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안전관리에 노하우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익산공장의 안전을 책임진 지 7년째 되는 자신의 역할은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다. 현재 익산공장에 근무 인원은 88명. 그 중 안전과 환경 부문을 전담하는 인원이 5명이 나 된다. 전체 인원 대비 안전과 환경에 대한 인력 투입율이 상당히 높다. “지난 2012년, 구미에서 발생했던 불산가스 누출 사고 이후 안전과 환경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오창우 보건관리자는 ‘이제 안전은 구호가 아니라 문화’라는 점을 몇 번이나 강조했다. “문화는 조직에서 생각하고 표현해내는 모든 것을 총칭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문화가 자리 잡은 사업장은 안전에 대한 지적을 했을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개선합니다.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은 곳에서는 지적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거부감을 느끼는 경향이 크죠.”

즉 조직 전체에 걸쳐 안전에 대한 높은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과 제도의 문제라는 뜻이다. 모든 것이 그러하듯, 안전 인식 역시 하루아침에 몇몇 사람에 의해 극적으로 변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시스템과 프로세스로 만들어낸 안전 정책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기초입니다. 구성원들로 하여금 회사가 안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꾸준히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외쳐서 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 무엇인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 구성원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해요.”





OCI(주)는 매년 안전과 환경에만 사용할 수 있는 1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바로 '회사의 기초'로 이어진다. 물론 예산 배정을 위해 오창우 보건관리자가 적지 않은 노력을 한 것은 당연하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하면,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철저히 검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 혹은 실수였다고 해도 말이다. 이 역시 오창우 팀장이 만들어낸 프로세스이다.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까지 OCI(주) 익산공장을 재해 없는 사업장으로 자리잡게 한 원동력이었다.

안전 왕도의 길은 반복 교육

회사의 기초가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전달됐다면 이제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 오창우 보건관리자에게 시작은 쉽지 않았다. 첫 교육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컴퓨터 활용을 할 수 없던 시절이라, 자료를 취합하는 것부터가 큰 일이었다. 그렇게 취합한 자료를 재가공해 가독성을 높이는 것 역시 오창우 팀장이 책임져야 했다. 이런 노력에도 교육이 시작되면 참여자 중 절반이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다.

“물론 속은 좀 상했지요(웃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좀 더 교육 대상자를 배려하는 쪽으로, 좀 더 흥미를 유발하는 쪽으로 기획하기 위해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런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진 덕분에 2017년 3월, OCI(주) 익산공장은



무재해 9배를 달성했다. 아울러 공정안전관리(PMS) 최고 등급인 P등급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는 오창우 보건관리자 스스로에게도 가장 자랑스러운 안전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제는 회사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런 긍정적인 흐름은 대규모 현장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오창우 보건관리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단 두 명이 있는 회사에서도 ISO9001 인증을 받습니다.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일 뿐이지요. 안전과 규모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이토록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익산지역 안전보건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하고 활발한 대외활동을 하며 안전보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를 수집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안전에 관한 일이라면 누구보다 솔선수범하는 그가 꿈꾸는 ‘안전현장’은 어떤 모습일까.

“안전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가 관련 법규를 지키는 것, 그 다음은 시스템을 구성해서 관리하는 것, 가장 높은 단계가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는 개인안전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장이 개인안전의 모범현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afety Talk

“교육이 안전의 모든 것입니다”

OCI(주) 익산공장 오창우 보건관리자

콩나물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모두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조금씩 콩에 흡수돼 훌륭한 콩나물이 되잖습니까. 안전교육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교육을 끊임없이 반복하면, 그것이 언젠가는 튼튼한 문화로 자리잡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투입되는 노동력과 시간이 아깝다고 해서 안전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장하고 있다는 믿음과 인내가 바로 안전현장의 밑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밑바탕 위에서 저는 OCI(주) 익산공장을 앞으로 지속적인 무재해 현장으로 만들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OCI(주) 익산공장의 산재예방 활동

OCI(주) 익산공장의 산업재해 현황

0

2014년

0

2015년

0

2016년

0

2017년 현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CEO 안전 메시지 (안전 지침)
2016년부터 CEO가 전 임직원에게 안전 편지 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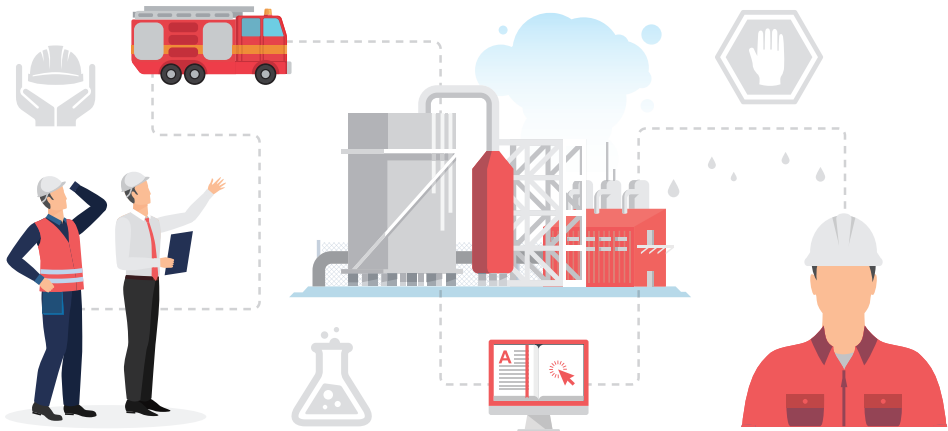
안전보건경영체계
라인-스텝 조직으로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인증 (2011년)



산업재해 대응체계
자체 자위소방대 구성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안전보건 활동



총괄현황
• 법정 안전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 안전관리담당부서장: 1명/관리감독자: 18명
• 안전보건교육: 사내 3개 교육 과정 운영 (관리감독자/사무업무중증사자/현장업무중증사자)



원·하청 상생협력
원·하청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2013년)



보건분야 활동
• 보건예산: 7천만 원
• 주요 활동: 종합검진, 직무스트레스 평가, 심뇌혈관계 발병위험도 평가, 특수건강검진, 유소견자 관리 (외부 전문가 활용)



안전분야 활동
• 안전예산: 4억 8천만 원
• 주요 활동: 안전경영대회(부서별 비상조치경진대회, 위험예지경진대회), 안전 퀴즈대회, 표어/포스터 공모, 안전가위 펀치 공모, 안전사진 공모, '아차'사고 발표대회 등
• 주요 사업: 무재해 실천 결의대회, 무재해 캠페인, 안전우수부서 표창, 안전 즉시 포상제도 운영



우수 사례
안전가위펀치 공모, 안전체험관 가족 참여, SHE 활동지수 개발 운영, 작업지도서 작성, 모든 회의전 안전동영상 시청, 불시 문자훈련 실시

성과 및 기타사항



주요 성과
• 무재해 9배수 달성 (2009.3.6 ~ 2017.3.15)
• 안전경영대상 수상(2010년)
• PSM P등급 유지(2015년 7월~현재)
• ISRS 등급 상향(L3→L5)



안전문화 확산
매월 4일 테마별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안전심리 검사 프로그램 실시, PSM App개발 보급



사회적 기여 활동
지역협업체 통한 기술지도 실시 및 정화활동 참여



11
대통령 표창

GS건설(주) 최수환 시스템파트장 안전은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운 문화’

22년간 건설현장에서 재해예방 업무를 맡아온 GS건설(주) 안전보건팀 최수환 시스템파트장은 자율안전 시스템 정착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에 매진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사고를 방지하고자 두 팔 걷어붙인 전문가들과 발맞춰, GS건설은 ‘안전’이라는 최고의 투자를 경영 일선에 배치했다.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업종
종합건설업


직원수
7,383명


특징
업계 최초
건설업 근로자
안전혁신학교 운영


홈페이지
www.gsenc.com


전화번호
02-2154-7605

노사 모두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자율안전 시스템

최수환 시스템파트장은 1994년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업무를 시작해 코오롱건설, 대림산업, GS건설에서 재해예방 업무를 담당해왔다. 경부고속철도 1-1공구 현장, 용인 경전철, 태백선 제천 쌍용철도 현장, 영종하늘도시 자동 크린넷 현장 등 수많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책임져온 그는 “사소한 위험요소라도 발생 가능한 최악의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예측해 주도면밀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2000년대 초 부천백화점 리모델링 공사현장을 비롯해, GS건설도 초창기에는 안전관리 부실로 사고가 잦았어요. 2005년 LG건설에서 GS건설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전은 노사 모두의 노력으로 완성됩니다. 경영자의 의지가 있어야 안전을 위한 투자가 이뤄지고, 시스템이 갖춰진 뒤에는 전 임직원, 나아가 협력사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마인드가 자리 잡아야 하죠.”

최수환 시스템파트장은 GS건설 자체 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인 ‘GS18001’ 개발을 주도했다. “프로그램 개발에만 6개월 가량 소요됐죠. 생명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업무를 맡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 공부하게 되고, 우리 회사 특성에 맞는 안전 시스템을 연구하게 되더군요. 공정별로 나뉘어 있는 현장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공정별 위험요소, 안전관리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3년여 기간의 축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험성평가를 현장에 적용하고 협력사와도 공유함으로써 재해감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했던 안전 시스템’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뿌듯했습니다.”



시스템, 교육, 소통 삼박자 갖춘 안전문화

지금도 최수환 시스템파트장은 각 현장 특성에 맞춰 위험요인을 설명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며, 구성원들이 따로 또 같이 안전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나간다고 한다.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면서 GS건설도 꾸준히 진화 중이다. GS건설은 KOSHA 18001 인증(2009년), OHSAS 18001(2005년)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에 이어, 연간 약 600억 원의 비용을 안전보건활동과 산업재해 예방에 투자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3대 경영방침 중 아예 '안전'을 맨 앞에 내세웠다. 특히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운영 중인 'GS건설 안전혁신학교'는 세간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사내·외 직무교육 안전강사로도 활약하고 있는 최수환 시스템파트장은 "GS건설의 안전교육은 철저하게 현장과 실습 중심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다"고 귀띔했다.

"안전사고 없는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려면 체계적인 시스템과 교육이 매우 중요해요. GS건설 안전혁신학교는 직원들에게 안전 책임감을 교육해 '실행력을 갖춘 안전혁신리더'를 육성한다는 모토로 탄생했습니다." 2006년 경기도 용인시에 건립한 GS건설 안전혁신학교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 상황에 대한 예방과 대응방안을 교육하는 안전 아카데미이다. 각종 재해 상황을 실제 상황과 똑같이 시뮬레이션해 철저하게 실습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는데, GS건설 전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 관리 감독 임직원까지 의무적으로 합숙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교 이래 지난달까지 총 인원 1만4,024명(직원 7,998명, 협력사 직원 6,026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협력사 안전경영시스템 컨설팅 지원

최수환 시스템파트장은 KOSHA 18001 인증심사원으로 활동하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능력이 취약한 전문건설사를 대상으로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2015년에는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CSMA) 회장으로 선출, 회원사 간 정보 교류 및 정부 산업안전보건정책TF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업무 협약을 추진해 한층 긴밀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용노동부 제도 개선을 위한 TF에 참여해 건설업 재해율 감소를 위한 정부 정책에 힘을 실은 것도 보람으로 남는다.

"제가 안전관리 업무를 시작했던 초창기와 비교하면 지금은 인식도 많이 바뀌고, 안전의 필요성에 관해 이야기할 기회가 많아졌어요. GS건설만 해도, 요즘은 2주에 한 번 경영실무진 전체가 모여 오직 '안전' 하나만을 화두로 회의를 진행하죠. 안전경영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자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서서히, 그러나 확연히 변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더 많은 근로자들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저도 꼭 힘을 보태겠습니다."

Safety Talk

"즐거운 안전문화를 만들기 위한 실행 노력"

GS건설㈜ 최수환 시스템파트장

GS건설은 자체 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인 'GS18001' 개발과 업계 최초로 건설업 근로자를 위한 안전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즐거운 안전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를 살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능력이 취약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컨설팅도 하고, 회원사 간 정보 교류는 물론 정부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이 지속성장 가능한 실행가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GS건설(주)의 산재예방 활동

GS건설(주)의 산업재해 현황(사망사고)

3

2014년

3

2015년

4

2016년

1

2017년 현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CEO 안전 방침
계획하고 알려주고 행동하자



안전보건경영체계
전사 QHSE운영위원회(월 2회),
기술안전위원회(월 4회)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인증(2009년),
OHSAS 18001인증(2005년)



산업재해 대응체계
분기 1회 국내 150여 개 사업장 비상모의훈련,
모든 재해 30분 내 보고 의무화

안전보건 활동



총괄 현황
• 법정 안전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311명, 보건관리자: 75명)
• 안전관리담당부서장: 2명
건설업체 최초 CSO 운영(부사장급),
안전담당임원(상무급)
• 안전보건교육:
업계 최초 안전혁신학교 운영
(2006.3 ~ 현재) 14,000여 명 교육 이수



안전분야 활동
• 안전예산: 약 600억 원
• 주요 활동:
전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및
사내 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인
GS 18001시행,
5대 주요장비 반입 전 사전검사
의무 시행, 안전신호등 경고제,
PTW(위험작업 사전허가) 제도



보건분야 활동
• 보건예산: 약 80억 원
• 주요 활동:
근로자 건강관리(일반, 특수,
배치 전 검진) 및 건강관리실 운영,
화학물질 중독예방 및 관리
(작업환경 측정, MSDS 관리),
근로자 건강증진 (금연, 절주, 직무 스트
레스 관리,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 운영)



원 · 하청 상생협력
안전우수협력사 수익계약 인센티브 부여
(업계 유일 매년 안전관리 우수협력사 선정 후
수익계약(연간 2개사))



우수 사례
필수안전수칙(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6가지 안전수칙) 제정,
PCM(고난도, 고위험 작업공종 및 신기술, 신공법 적용 시
사전검토를 통한 리스크 저감 사전미팅) 시행

성과 및 기타 사항



주요 성과
• 안전경영대상 수상(2014년)
• 건설업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표회
최우수상 수상(2015년)
• 건설업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표회
우수상 수상(2016년)



안전문화 확산
4.4.4 안전점검의 날 실시
(4일 테마점검/ 14일 추락예방 점검/
24일 장비안전 점검)



사회적 기여 활동
사랑의 김장나눔기,
꿈과 희망의 공부방(160호점),
즐거운 방과후교실(10호점),
꿈과 희망의 놀이터



(주)서연이화 김향미 보건관리자 기업 역량의 제1 전제는 근로자의 건강

보건이 전사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개념조차 희박하던 27년 전, 김향미 간호사는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인 (주)서연이화의 보건관리자로 입사했다. 공단 최초의 보건관리자였다. 직원들의 건강증진에 힘쓴 여성 보건관리자는 27년 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시스템 개선에 앞장서는 '최고'의 보건관리자가 되었다.


소재지
울산광역시
북구 효암로 336


업종
자동차
기계기구제조업


직원수
650명
(경영진 10명 포함)


특징
지역사회
산업보건 발전에 기여


홈페이지
www.seoyoneh.com


전화번호
052-219-5000

근로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 정립

'작지만 웅골지다'. 현대자동차 협력사로 자동차 도어, 시트 등 자동차 내장 관련 부품을 제작해온 (주)서연이화의 보건관리 시스템을 설명하는 한 문장이다. 2017년 한 해에만 '제1회 올해의 중견기업 대상 해외진출 부문'과 '제2회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 사회공헌경영부문' 등 굵직한 상을 휩쓴 (주)서연이화. 그 중심에 직원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역량을 낼 수 있도록 건강 증진에 앞장서온 터줏대감 김향미 보건관리자가 있다. 총 650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로서 27년간 근무해온 그녀의 사명감은 남다르다.

"입사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유일한 보건관리자였어요. 그 당시 최고경영자의 보건의식이 그만큼 남다르셨죠. 근로자들의 건강과 컨디션을 최우선으로 삼는 회사의 기조에 따라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어요." 2013년에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주)서연이화는 노사 공동으로 매년 안전보건 관련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왔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이후 점차 감소한 산업재해는 2013년 2건, 2014년 1건을 기록하더니 2016년부터는 무재해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작업 특성상 단순 반복작업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발생률이 높은 점에 착안, 전문 컨설팅과 연계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 및 설비 투자로 질환예방에 기여했다. 또한 안전보건 투자 노력과 정보가 부족한 사내·외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 발주사와 협력업체 간 안전보건 자율점검 시스템을 체계화하기도 했다.



보건 사각지대가 없는 세심한 건강 증진 관리

“저희 같은 규모의 기업에서 이 정도 건강증진 시스템을 갖추기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요.” 근로자들의 건강을 회사가 공동으로 책임지겠다는 인식 하에 ㈜서연이화는 매 2년마다 직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종합건강 진단비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검진결과 유소견자로 분류된 근로자들은 인근 보건소와 연계, 정기적인 병리 검사 및 건강 상담을 통해 근로자 스스로가 건강 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중증질환자로 분류될 경우, 인근 직업환경의학과의 업무적합성평가를 실시, 개인의 건강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작업가능 여부를 협의한다.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흡연과 대사증후군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초 금연 홍보는 물론 인근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에 등록해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1일 1~2식을 이용하는 근로자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매 끼마다 염도 체크를 하고 게시하는 저염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뇨병자의 체험식을 위한 당뇨식 이벤트를 실시하여 건강한 식습관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한 근로자 직무 스트레스, 우울증 척도검사, 스트레스 반응검사 및 자살 예방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 근로자의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관리하고 있다. 관리감독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심폐소생술교육을 실시, 응급상황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체의 35%에 달하는 여성근로자들을 배려, 사내 인근에 운영되는 어린이 집의 영·유아 질환 관리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지역 산업 보건관리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하고파

㈜서연이화의 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경험을 토대로, 김향미 보건관리자는 지역 산업보건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도 일익을 담당해왔다. 총 4년간 한국 산업간호협회 울산지회장을 역임하면서 유관 기관과의 정기적인 업무 교류 및 간담회를 실시, 매년 회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직업건강 솔루션을 기획하고 행사를 통한 협회 발전에 기여한 것이다. 2016년부터는 한국산업간호협회 부산경남지부장을 역임하면서 정기적으로 회원 동향을 분석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활동과 자격증 도전반을 개설해 회원 역량 강화에도 힘써왔다. 매년 인근 지역 간호학과 학생들을 위한 취업특강을 통해 보건관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 졸업 후 취업 시에 우수 인력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회사 역량, 성과가 직원들의 건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직원들의 건강 관리는 적절한 보건관리자의 처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보건관리자의 관리 서비스는 점점 전문화되어 가는데 보건관리자에 대한 처우는 비정규직으로 고용 불안의 고통을 겪는 등 그에 반비례하는 사례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산업보건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보건관리자에 대한 처우가 동시에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Safety Talk

“클라스부터가 다른 ㈜서연이화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서연이화 김향미 보건관리자

㈜서연이화에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체력단련실과 건강증진실을 운영해 작업자가 작업 전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증진실에는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어깨 마사지기, 파란판 등 총 10가지 건강증진 및 피로회복 기구가 비치돼 있다. 뿐만 아니라 작업장 내에 체력단련 기구를 설치하여 휴게시간이나 작업 전후를 이용하여 간단한 근력운동을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관리사무직원들의 거북목증후군 예방을 위해 근무시간 내 오후 2시 휴식시간 동안 사내 방송을 통해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주)서연이화 울산공장의 산재예방 활동

(주)서연이화 울산공장의 산업재해 현황

2

2014년

2

2015년

0

2016년

0

2017년 현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경영체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 각각 5인
구성·운영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인증
(2013년)



산업재해 대응체계
사내 응급시설 및
5분 대기조 운영 등



안전보건 활동



총괄 현황

- 법정 안전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2명)
- 안전관리담당부서장: 1명/
관리감독자: 29명/안전담당자: 2명
- 안전보건교육: 4개 교육 과정 운영



원·하청 상생협력

- 원·하청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2012 ~ 2016년),
2016년 무재해로
우수기업 선정되어 제외



안전분야 주요 활동

- 노사합동 안전보건 패트를 운영,
과감한 시설 및 설비투자,
무재해 라인 포상금 지급
- 안전보건 개선활동 강화로 제안전성화
- 사내 협력사 안전보건점검 연계활동 등



보건분야 주요 활동

- 전사원 및 가족 종합검진(1인/40만 원),
근골격계질환 정기컨설팅, 물리치료실 운영,
정신건강 분야 각종 검사 및 사후관리,
건강유소전자 건강상담 및 추적검사비 지원
- 사내 방송을 통해 체조 및 스트레칭 보급
- 사내 직원 및 가족(회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들의
법정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

성과 및 기타사항



주요 성과

- 무재해 2배수 달성
(2015.4.28 ~ 2017.5.31)



건강증진 프로그램 활성화

- 정신건강 이벤트(스트레스 뒤풀이),
금연·절주·영양캠페인, 금연클리닉,
1인 1운동서를 가입 등



사회적 기여 활동

- 인근 지역 저소득계층 물품지원 및
사회복지단체 기부 등
- 봉사활동:
매월 '밥퍼' 지원, 재난지역 봉사활동,
지역어린이보호센터 방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광일 실장

매일 매일이 안전 점검의 날, 안전보건의 생활화 실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산업안전보건연구소를 운영하며 산재취약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소기업 사업장 안전진단 및 안전교육, 안전보건 점검용 다이어리 배포, 업종별 산재예방 활동 등을 통해 산하 노동조합에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있다.

다이어리를 든 안전 전도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만난 김광일 실장은 손에 책 한 권을 들고 있었다. 한눈에 보기에 일반 다이어리처럼 보이지만 내지를 살펴보니 92개에 달하는 월별 안전보건 점검사항이 빠곡하게 정리돼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제작한 안전보건 다이어리에는 바쁜 업무에 쫓겨 소홀해질 수 있는 안전보건 점검 사항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어 늘 다이어리를 소지하며 안전보건점검을 생활화 할 수 있다.

“사업장 안전보건을 사측에만 맡기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노동자 스스로 안전보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매년 안전보건 다이어리를 제작해 지역지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연구소 김광일 실장의 설명이다. 우리나라 양대 노총 중 하나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각 산업체에 조직된 노동조합의 연합단체로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산업 안전보건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산업안전보건연구소로 개편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연구소는 주로 안전보건 교육 및 사업장 진단,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대기업에 비해 근로환경이 열악한 대부분의 중소기업 사업장은 안전관리 수준이 낮고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높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사업장일수록 자칫 안전보건 관리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중소기업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이 노조 간부, 조합원, 지역별, 업종별로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서비스업은 감정노동 및 정신적 장애 예방에, 제조업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등 사업장 실정에 맞게 산재예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매년 50여 개의 1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 산재 위험요소를 발굴해 개선하고 노사가 함께 산재예방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013년 위험성평가제도를 시행하기 전부터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한 후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사업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툴을 개발해 적용해왔다. 현재는 위험성평가제도가 소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및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외 안전관리자가 없는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개선기법을 전파하고 있다.

“현장에 점검을 나가면, 급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 안전장치를 해제했다는 등 여전히 안전사고가 단순한 실수에 의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태도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급하게 작업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소속 조합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단체협상 시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안전보건경영체제 도입에 관한 단체협상 가이드와 단체협약 자료집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업종별 산재예방 제도 개선 촉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그동안 업종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 서 왔다. 궤도 관련 작업 중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방지 기준 제정 및 작업장 개선을 위한 기틀 마련,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활성화 방안 제안, 발전장비 작업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실태 조사, 우편 집중국 종사자의 안전보건 실태 파악 및 노사 설명회 개최, 국립공원관리공단 현장조사 및 노사 설명회 개최 등 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최근에는 마필관리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목을 모으고 있는 경마산업 재해 대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김광일 실장은 “올해는 산업재해 취약 계층을 위한 기초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재해 발생보고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를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afety Talk

“산업재해 은폐 추방, 안전보건의 시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연구소 김광일 실장

2014년 7월 산재발생보고제도가 변경됐습니다. 예전에는 부상 사고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산재 접수와 별도로 각 지역 고용노동지청에도 산재보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뀐 것을 모르는 사업장이 많고, 여전히 사업주가 은폐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산재 발생 건수를 축소하기보다 정확하게 밝히야 사회적 관심을 높여 올바른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노사 모두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광일 실장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기여 활동



- 노조간부 대상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 매년 50여 개의 중소규모사업장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노사 모두가 산재예방에 나설 수 있는 작업장 환경을 조성
-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기준 제정 참여
- 건설업 PQ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참여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활성화 방안 제안
- 국회 환노위 주관 건설안전문화 정책간담회 활동
- 중소규모사업장 정량적 위험성평가 TOOL 개발
- 안전보건 점검용 다이어리 제작 및 배포
- 산재발생 보고제도 정착을 위한 현장홍보
- 위험성평가제도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및 홍보
- 산업안전보건 캠페인 개최
- 산업별, 지역별 노조 간부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간담회 개최
-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단협 지침 마련
- 안전보건경영체제 필요성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에 홍보 기여
- 산업안전보건 단체협약자료집 제작





14

대통령 표창

한국경영자총협회 임우택 본부장

안전보건을 향한 삼위일체의 노력과 조율

정부, 기업, 노동계의 중심에서 합리적인 조율을 해오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16년 ‘안전보건본부’를 새롭게 출발시켰다. 이는 선진적인 기업의 안전 마인드와 노동계의 입장을 더욱 존중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지금은 본격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단계이지만 앞으로 꼭 해야 할 일들을 예상하면 인원을 비롯해 보충해야 할 것들이 많다.

국내 경제단체 유일의 안전보건 전담 부서 탄생

1970년 7월 설립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합리적인 기업경영과 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해온 경제단체다. 최근 경제 발전과 더불어 근로자 안전 및 보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기업 내 안전문화를 고취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및 환경안전 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6년 팀 체제에서 본부 체제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다.

“우리나라 경제단체 중 안전보건과 관련한 전문 부서는 여기가 유일해요. 현재 산업안전팀과 보건환경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은 본격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장의 안전보건 및 환경안전 관리, 비현실적인 규제 발굴 및 제도개선 건의,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애로사항 지원, 법률상담 및 노사분쟁 예방·지원, 단체협약 교섭 지원, 회원사의 안전보건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 등 안전보건본부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다. 또한 당장 해야 할 일들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인원 보강도 절실하다. 그럼에도 겉으로 매우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동갑인 임우택 본부장의 업무 노하우와 통찰력 있는 리더십 때문이다.

정부, 기업, 노동계의 바람직한 상생

사회복지팀, 안전보건팀, 홍보팀을 두루 거쳐온 임우택 본부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입사해 지금까지 언제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왔다. 이견이 큰 사안을 합리적으로 조율해오는 동안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겼고, 상대방 입장을 진심으로 존중할 때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서 보람과 직결되는 공적 활동들도 쌓여갔다. “소기 성과라고 한다면 산업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소통의 장과 합리적인 안전규제를 마련한 것이예요. 실질적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안전투자를 이끌어낸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큼니다. 안전경영 실천 결의문 채택 등의 활동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투자과 안전관리 조직이 꾸준히 확충되고 있는 것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요.”

정부, 기업, 노동계가 합일점을 찾지 못하면 진행하던 일이 수포로 돌아가기 십상이다. 임우택 본부장은 지금까지 그러한 일들을 수없이 겪으면서 안전보건과 관련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사의 일부분을 써왔다. 그러면서 몇 가지 바람이 생겼다. 1, 2년 단위로 자리 이동을 하는 정부 정책 담당들의 장기적인 근무,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사업주의 기업 경영 마인드,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제고 등 이 세 가지만 확립된다면 훨씬 나은 나라, 기업, 산업현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에서 안전보건으로

안전과 관련한 문제는 다른 노사문제와 달리 시각의 차이가 큰 편이다. 경제적 손실과 이미지를 고려해야 하는 기업의 우선순위와 열악한 근무환경과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

야 하는 노동계의 우선순위가 극과 극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도 큰 이유다. 국민들의 보건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에서 ‘안전보건’으로 문제가 확장된 것이다. ‘안전보건’의 경우 업무적 요인인지 개인적 요인인지 그 경계가 모호할 때가 있어 양측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 또한 앞으로 안전보건본부가 체계적으로 해야 할 일 중 하나다.

“산업안전과 관련한 중복 규제 법률을 일원화시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것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꼭 해야 할 일이에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산재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의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어요. 이미 안전관리계획서의 중복작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서식을 마련한 성과가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우택 본부장은 가능한 기업과 산업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그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한다. 문서로 전달받는 목소리에는 아무래도 마음이 덜 쓰이기 때문이다. 덕분에 올해 새롭게 출발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 직원들의 책상 위에는 산업현장의 목소리가 점점 더 두텁게 쌓여가고 있는 중이다.

Safety Talk

“선진국 수준의 안전문화와 재해율을 위한 조건”

한국경영자총협회 임우택 본부장

효과적인 산재예방 활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영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영자가 안전을 경영원칙의 우선으로 삼을 때 비로소 안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령이 복잡하고 난해해서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알리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 점을 쉽고 명확하게 개선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안전보건본부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며 산업현장의 안전문화와 재해율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도 경영 여건이 좋지 못한 중소기업에 더욱 많은 정책적 지원과 안전보건경영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임우택 본부장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기여 활동



- 정부 · 안전보건공단 주관 산재예방정책 위원회 및 회의에 경영계 대표로 활동
 -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 산재보험정책전문위원회, 산재보험요양전문위원회 등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제정위원회 (산업안전일반분야, 리스크 관리 분야), 서울지역본부 자금지원 심사위원회, 화학물질 유해성시험 평가 운영위원회 등
- 산재보험제도 개선(2006년),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2008년), 산재예방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 도출(2013년)
- 안전투자 및 안전경영실천 유도를 위해 고용노동부 주관 CEO 간담회 참석 및 산재예방실천 경영계 결의문 채택,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실행 강화 경영계 지침 회원사 시달(2014년)
- 석유·화학·전자·반도체업종 주요기업 9개사의 안전투자 확대 (2013년 8,000억 원, 2014년 1조 6,000억원, 2015년 9,000억 원 등) 및 안전인력 확충 유도
- 주요 기업 안전보건담당 대상으로 경영층 안전보건 세미나 안전공단과 공동 개최(2016년)
- 화학사고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조선업 재해예방 국제세미나 개최(2009년)
- 환경부장관 초청 정책간담회 및 고용노동부 차관 초청 화학사고 예방 정책간담회 개최(2013년)





15

대통령 표창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기식 안전보건정책연구실장

패러다임 바뀌어도 ‘한 우물 정신’ 그대로

안전연구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엿보이기 시작하던 1990년대 중후반, 김기식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장은 체계적 연구를 위한 기틀 마련으로 국내 산업안전 연구를 궤도에 올려놓았다. ‘기’ 연구를 ‘뛰게’ 만든 것이다.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사이, 연구 대상도 기술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문화로 바뀌었다.

안전보건연구 시대의 서막을 열다

“연구원에게는 한 우물만 팔 수 있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국내 산업안전보건 연구를 이끈 김기식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장은 ‘한 우물 정신’을 강조한다. “일본에는 20년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연구원들이 많습니다. 양적인 면에서 인적 자원이 풍부한 것도 장점이지만 질적인 면에서 연구의 차원, 깊이가 다른 점은 따라잡고 싶을 만큼 부럽죠.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우리도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연구는 커녕 안전의식마저 미흡했던 90년대, 그는 처음으로 산재 통계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한 후 산재통계분석팀장으로 재직했다. 그때 했던 일이 기업신용등급, 재무정보 등 산재발생의 복합적 원인을 심층 분석하여 사회현상과 산업재해와의 연관성, 재해발생 예측 등 과학적 통계를 통해 정책결정, 예방사업 수립 및 방향 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는 꼼꼼하고 치밀한 성격을 십분 활용해 직종, 세부업종, 재해강도 등 정보를 세분화, 다양화한 후 사업 타깃 선택과 몰입의 방향을 제시하고, 산재통계 시스템과 성과관리 시스템이 자동 연동되도록 했다. 이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제공한 것이다. 그 결과 통계의 활용도가 대폭 증가, 이를 기반으로 안전보건공단의 중장기 경영목표 설정과 글로벌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때만 하더라도 불모지나 다름없던 안전보건연구의 서막을 알린 시작이었다.

기술에서 사람 중심으로 이동한 산업안전 연구

안전연구원과 보건연구원이 통합되면서 그는 신설된 연구기획팀장직을 수행했다. 연구과제 선정에서부터 결과 평가에 이르는 연구업무 처리 규칙을 제정, 본격적인 연구 관리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 이 때다. 99년 말부터 6개월간은 국무총리실 안전관리대책 기획단에 파견 근무하면서 산업안전 분야의 국가안전망 구축을 기획하기도 했다. 현재 공단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학물질센터는 당시에 기획한 것이다.

“안전이 기술이라는 인식에서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던 과도기였죠. 기존 기술 중심의 안전을 선진국처럼 사람 중심으로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람이야말로 안전의 주체이자 그 대상이었으니까요.” 안전을 위해서라면 ‘No맨’이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업장 위험성평가 도입을 처음으로 주장했던 김기식 안전보건정책연구실장. 하지만 빠른 완료 및 시행을 원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는 성급한 위험성평가가 또 다른 위험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유일하게 줄속처리 반대를 외쳤다.

도전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국가 통계인 근로환경조사를 실시해 설문지 개선, CAPI 시스템 도입, 사전 사후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 정책 수립 시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품질 향상에 기여했고, 국가 승인통계 2종(근로환경조사, 산업재해원인조사)에 대한

프로세스 관리를 통해 통계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2010년까지만 해도 7건이었던 개선 과제를 불과 2년 만인 2012년도에 완전 제로화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세계적인 궤도에 오른 국내 산업안전 연구

27년 동안 연구원으로 몸담아오면서 김기식 안전보건정책연구실장은 셀 수 없이 많은 논문을 썼다. 그는 연구 인력이 부족한 대한민국 연구원으로서 자신이 짊어져야 했던 사명을 풀어놓는다. “영국의 경우 연구 인력만 250~300명에 이릅니다. 우리의 경우 소득 3만 불을 내다보는 국가치곤 연구 인력이 형편없이 적은 실정입니다. 개발 위주의 정책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도 개선해야 할 점이고요.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네요.”

공단에서 발간하는 안전보건 국제학술지의 품질 관리에 주력한 끝에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점은 그의 가장 빛나는 공적으로 꼽힌다. 그가 주축이 되어 2015년 가을 처음 발간한 <SH@W>는 창간 3년 만에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SCOPUS>와 <Science Direct>에 처음으로 등재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으며 한국연구재단 국내 등재후보지에도 선정되었다. 또한 2016년 12월에는 <ESCI>에 등재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매거진의 성공적인 발간 덕분에, 조금은 변방으로 비쳐나 있던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연구는 이제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이 참에 산업안전보건연구 분야의 선진국으로 위상을 갈아엎고픈 욕심이 그를 더 바쁘게 움직이게 한다. “지금껏 안전을 안전기술의 측면에서 봤다면 앞으로는 안전문화의 측면에서 접근해 연구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정책, 규제를 토대로 사업장의 안전 의식, 분위기, 문화를 구축하고 강화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말이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들 하는데, 안전만큼은 영원한 연구 과제인 것 같습니다.”

Safety Talk

“기계공학박사가 심리학을 공부한 이유”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기식 안전보건정책연구실장

안전이 기술로 다루어지던 시절에는 기계공학이라는 전공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무를 접해보니 기계적인 측면 이외의 요인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마침 기술에서 사람으로, 안전의 주축이 이동하던 과도기를 통과할 때였어요. 기계 문제를 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사람을 읽을 수 있는 심리학을 전공하게 되었죠. 심리학을 공부한 덕분에 안전문제에 좀 더 본질적이고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기식 실장의 산업안전보건정책 기여 활동



- 국무총리산하 「안전관리대책기획단」 파견(2001년), 국가 안전망 구축 기획
*화학물질센터 설립을 주장, 현 산업화학연구실 설립의 초석에 기여
- 융합적 정책연구를 위하여 법학,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연구결과 실용화 및 정책, 제도에 반영
*20여 편의 보고서 및 논문 작성
- 연구원 연구업무처리규칙 제정 및 중장기 안전보건 연구 수요 조사를 통해 연구원의 연구 성과 창출에 기여
- 공단발행 학술지 <SH@W>가 창간 6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과 거둠
-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DB인 <SCOPUS>와 <Science Direct>에 등재(2013년), ESCI 등재(2016년)
- 산재발생의 복합적 원인을 심층 분석하여 정책 결정 및 예방사업 수립, 방향 결정을 위한 정보로 제공
- 근로환경조사 체계 확립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에 기여
- 국가통계인 근로환경조사를 실시하며 설문지 개선, CAPI시스템 도입, 사전 사후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 정책 수립 시 필요한 통계자료의 품질 향상에 기여



04

국무총리 표창

행복으로 가는
안전 대한민국



092

(주)에스지텍 김동연 대표이사

안전은 의식하기 전에 노력

098

선우정밀(주) 김홍덕 대표이사

위험성평가 4대 행동원칙
정립으로 일군 4무(無) 사업장

104

(주)PMS 조원국 대표이사

바꿀 수 없는 절대가치, 안전

110

(주)대진 장지수 대표이사

긍정 에너지로 만드는 안전문화

116

SK하이닉스(주)
김영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한
포괄적 안전보건 시스템 확립

122

(주)건우 정병복 안전관리자

모두가 함께 만든
6,294일의 무재해 신화

128

현대교통(주)
이병열 과장

맨투맨 교육으로
안전의식부터 혁신

134

태원건설산업(주) 1-1생활권단지
조성공사 장인찬 안전관리자

안전규정 준수는
내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일

140

한경대학교 토목안전환경공학과
백신원 교수

집단지성 모아
안전사회로 가는 대한민국



16

국무총리 표창

(주)에스지텍 김동연 대표이사 노사협력으로 완성한 무재해 일터

2015년 1월, LG화학(주) 최우수 협력업체 및 공생협력 프로그램 모범업체로 선정된 (주)에스지텍은 기업 이미지를 위해 안전을 추구하지 않는다. 자칫 말만 그럴 듯한 방향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한 일터'는 노사가 협력해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이 상식적인 생각 하나로 지난 3년 간 '무재해'와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이뤘다. 그리고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도 동반 상승했다.



소재지
충북 증평군 증평읍
도안면 화성로 12



업종
제조업



직원수
124명
(경영진 5명 포함)



2016년 산재예방 투자액
7,000만 원



특징
LG화학(주)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전화번호
043-836-6100

미래 지향적인 안전의식 정착

(주)에스지텍 김동연 대표의 이력에는 항상 LG화학(주)가 따른다. 2005년 LG화학(주) 생 산팀장으로 퇴직, 2006년 LG화학(주) 소사장제 회사 테크맥스 운영, 2010년 LG화학(주) 필름가공 협력업체 (주)에스지텍 설립 등 LG화학(주)과 관련한 유관사업을 계속 해왔다. LG화학(주)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처음부터 적극 참여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안전과 관련한 전담 부서가 따로 없다 보니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고민하던 차에 LG화학(주)로부터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연락이 왔어요. 전문가들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안전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일일이 체크해줘서 미비했던 점을 제대로 보완할 수 있었지요.”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서 (주)에스지텍은 현장의 유해 및 위험 요인을 제거할 수 있었고, 근본적인 현장 위험요인 개선과 산재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공생협력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이제 3년 남짓,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주)에스지텍은 미래 지향적인 안전의식까지 갖게 되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심히 듣고, 성실하게 실행에 옮긴 결과다.



선행적 안전 시스템을 통한 시간 단축, 비용 절감

(주)에스지텍은 올해 2월 14일 산업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KOSHA 18001 인증'을 받았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나중으로 미루거나 어쩔 수 없이 받거나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주)에스지텍은 자발적 선택이었다. “우리가 먼저 인증을 받겠다고 한 것은 후조치보다 선행이 먼저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KOSHA 18001 인증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능한 선행적으로 안전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주)에스지텍이 가능한 선행적으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다. 안전사고는 무엇보다 사전 조치가 최고의 예방이라는 것, 후조치는 더욱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주)에스지텍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안전관리에 신경 쓰고 있다. 그리고 가능한 자체적으로 보완 및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대기업이나 기관에 협력 요청을 하면 비용과 시간이 더 드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주)에스지텍은 안전과 관련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체적으로 구입, 제작한다. 당장 필요 없어 보이는 것도 혹시 모를 사고를 위해 준비해 둔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 빠른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음으로 미루지 않는 철저한 준비가 3년 '무재해 현장'을 만든 셈이다.



산재예방 투자를 통한 즐거운 일터

(주)에스지텍은 지난해 총 매출액 97억 원 중 7천만 원을 산재예방에 투자했다. 직원 125명의 중소기업으로서는 보기 드문 액수다. “2010년부터 매년 6천만 원 이상 투자해 왔고, 현재 누적 금액이 4억 3천만 원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과 공정개선 활동에 쓰이고 있지요.” 2015년 272건, 2016년 663건. (주)에스지텍이 생산공정 및 설비에 잠재된 위험요소를 초기에 찾아내어 사전 관리하거나 제거한 숫자다. 만약 산재예방을 위한 투자를 꾸준히 해오지 않았다면 직원들은 수백 건에 이르는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회사가 안전보건을 최우선 경영 목표로 두자 직원들의 안전의식 또한 매우 높아졌다.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아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 행동 불합리 원 포인트 제도'를 철저하게 따르고 있다. 외부기관 관리자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에도 매년 2명씩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스스로 심신의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 결과는 김동연 대표가 올해 '충북을 빛낸 중소기업인 6명'에 선정되는 기쁨으로 돌아왔다. 노사가 협력하여 만들어진 안전한 일터가 보람의 일터가 된 것이다.

Safety Talk

“안전사고는 낮추고, 생산성은 높이고”

(주)에스지텍 김동연 대표이사

(주)에스지텍은 가공된 판광필름을 규격에 맞게 재단하여 검사, 포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섬세한 공정이라 대부분이 여성 근로자들입니다. 때문에 관련 여성단체와 연계한 상담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의 성격상 폐쇄적 공간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직원들의 안위를 살피려고 합니다. 위험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 시스템 마련은 물론 가능한 자동화 설비를 통해 안전사고는 낮추고 생산성은 꾸준히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주)에스지텍의 산재예방 활동

(주)에스지텍의 산업재해 현황

0

2014년

0

2015년

0

2016년

0

2017년 현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경영체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인증
(2017년)



산업재해 대응체계
재난 안전관리 매뉴얼 및
안전사고 대응체계 운영 등

안전보건 활동



총괄 현황
• 법정 안전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대행, 보건관리자: 대행)
• 안전관리담당부서장: 1명(공장장)
관리감독자: 18명/
안전담당자: 1명
• 안전보건교육:
매월 2시간 안전보건 교육



원·하청 상생협력
LG화학 협력업체로
원·하청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2014~2017년)



보건분야 활동
• 보건예산: 1억 원
• 주요 활동:
근골격질환 예방 In-Line계획,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 건강건강 진단 등



안전분야 활동
• 안전예산: 4억 3천만 원
• 주요 활동:
재단실 마킹기 주변 작업환경개선,
3정 5S TFT 추진, 안전환경 개선작업 등
• 주요 사업:
작업자 행동 불합리 원 포인트 발굴, 안
전사고 예방 우수사례 선발 등



우수 사례
지게차 책임 전담제 실시:
지게차 전담 운전자가
작업전 운전자 표지 부착,
안전검사 실시,
운전자 준수사항 확인 등
책임의식 고취하여
지게차 안전사고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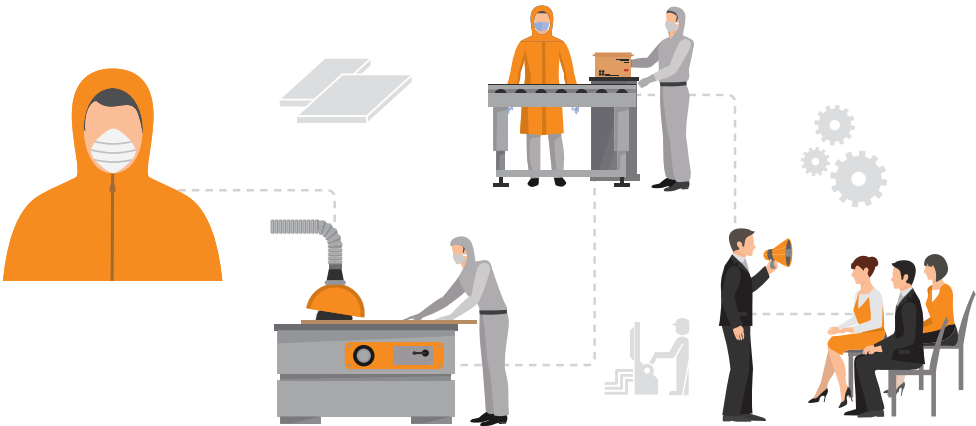
성과 및 기타사항



안전문화 확산
매월 노사 안전점검 실시,
매년 2월 노사참여 안전지원제 실시,
안전사고 예방 우수사례 관리자 워크숍 교육 참여,
안전사고 예방 동기 부여



사회적 기여 활동
여성부 여성친화 일촌기업 참여 일자리 창출 및
충북대학교 등 산학협력 참여





17

국무총리 표창

선우정밀(주) 김홍덕 대표이사

위험성평가 4대 행동원칙 정립으로 일군 4무(無) 사업장

선우정밀의 안전관리 목표는 '위험 제로(Zero)', '사고 제로', '오염 제로', '질병 제로'다. 여기에는 단 하나의 불안정 요소도 무심코 넘기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은 선우정밀의 4무(無) 목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요소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재된 안전의식은 그 어떤 지시보다 강력한 보호장치다.



소재지

충북 음성군 대소면
내산길 21-13

업종

제조업



직원수

45명

(경영진 1명 포함)



2016년 산재예방 투자액

2억 4,000만 원



특징

위험성평가
우수업체

(안전보건공단, 2014년)



전화번호

043-883-2616

최우선 가치는 안전

충북 음성군에 자리한 선우정밀은 1996년에 설립된 방위산업체다. 방위산업 중에서도 살상무기에 해당하는 화약과 관련한 폭발물의 기폭장치인 신관 부품을 제조한다. 부품 하나가 잘못되면 자칫 적이 아닌 아군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선우정밀에게 안전은 창업 당시부터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였다. “1980년에 방위산업체 개발부서에 입사했는데, 부서 안에서 빈번한 화약 폭발과 인사 사고를 수차례 경험하며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죠.”

창업 이후에도 경각심을 높일 사례는 있었다. 일례로, 한 직원은 경력에 대한 자만심으로 안전장치를 풀고 작업하다 손가락 절단 사고를 입었다. 그때 김홍덕 대표는 안전장치 해제 버튼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단호한 조치를 했다. 사업주의 강력한 의지 속에 2001년부터 10여 년간 안전관리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직원들의 안전의식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김홍덕 대표는 2012년, 직업 위험성평가 교육을 받고 2013년에 위험성평가 컨설팅에 나섰다. 컨설턴트의 지속적인 교육과 설득,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직원들의 안전의식에도 차츰 변화가 일어났다. 비로소 ‘안전’의 가치가 직원들의 인식 속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프로세스에 입각한 매일 안전관리

사업주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은 전사적 안전관리의 시작이었다. 선우정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기존 안전관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파악한 후, 안전보건 시스템을 갖추는 데 주력했다. 안전보건공단의 KRAS를 기본으로 선우정밀의 공정과 상황에 적합한 6단계 위험성평가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것. 나아가 8단계에 이르는 일일 표준안전활동 프로세스는 안전을 습관화할 수 있게 하는 요소였다. 전날 퇴근 후 직원들이 어떤 스케줄을 보냈더라도, 다시금 안전 수칙을 상기하며 작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선우정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전 직원의 안전관리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골몰했다. 컨설팅 당시에도 직원들에게 직접 '작업장 내 위험요인 발굴'이라는 미션을 전했다. 덕분에 그 해에만 무려 86개 위험요인을 찾을 수 있었다. 회사가 주축이 되어 직원들의 의식 변화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직원들에게도 점차 '위험을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했다.

안전의식은 항상, 안전문화는 확산

선우정밀은 관리자 지도 방식이 아닌 직원 스스로 주도하는 자발적인 안전문화 정착에 관심을 쏟았다. 이는 사내에 전용 안전관리추진실 설치로 확장되었다. 더불어 2012년부터 지금까지 금요일마다 안전관리 정기회의를 개최해 사내의 유해 위험요소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 관리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일 속에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안전은 '위험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관리자가 아무리 '위험하다'고 말해도 작업자들 스스로 주체적인 안전의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직원 개개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불안정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지원제도도 시행했다. 개인별 10,000시간 무재해 달성, 제안 50건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명장 수당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근속 3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해 직원들의 가정 스트레스 완화에도 주력했다. 현장 순회 점검, 인터뷰 조사,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실시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도 마련했다.

이처럼 선우정밀은 '타협 없는 안전관리'로 10년 이상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16년에는 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하는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안전관리를 통해 맺은 결실은 분명하지만, 선우정밀은 이 기록이 과거의 것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산재예방 활동에 더욱 주력하려 한다.

Safety Talk

“공정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으로 환경부터 의식까지 변화”

선우정밀㈜ 김홍덕 대표이사

선우정밀은 입출고를 비롯한 4개 주요 공정에서 공정안전관리 위험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교육에도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직원 스스로 위험 요소와 유해 요인을 파악하고 스스로 감소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안전을 지키는 일은 나의 일'이라는 인식이 직원들에게 생겨납니다. 현장에 가보면 곳곳에 안전 표어와 안전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요, 직원들의 참여 속에 선별한 내용으로 구성해 직원들의 인식 변화에도 큰 효과를 거뒀습니다. 때로는 안전 관리를 더 잘하려고 시도한 일이 안전에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눈에 보는 선우정밀(주)의 산재예방 활동

선우정밀(주)의 산업재해 현황

0

2014년

0

2015년

0

2016년

0

2017년 현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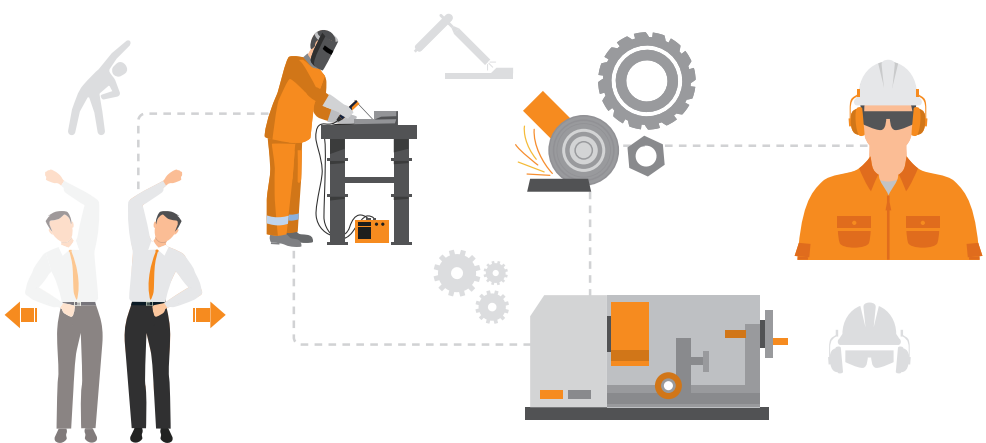


안전보건경영체계

- ISO9001 매뉴얼에 안전보건업무 추가
- 안전보건공단의 KRAS를 기본으로 자체 위험성평가 운영체계 구축
- 안전 관련 각종 시상제도 운영



산업재해 대응체계 안전관리 비상조직 운영



안전보건 활동



총괄 현황

- 관리감독자 교육(매년 4명)
- 안전보건교육:

사내 정기 및 수시교육 실시, 외부강사 초빙 교육 실시



원 · 하청 상생협력 연 2회 (주)한화 안전점검 지도



안전분야 활동

- 안전예산: 3억 원
- 주요 활동: EYE LOVE DAY 운영, 3정 5행 우수팀 시상제도 등
- 주요 사업: 안전표어 대회, 안전명장제, 안전등반대회



보건분야 활동

근골격계질환 예방 스트레칭, 특수 분야 근로자 진단, 각종 예방접종 실시 (파상풍, 독감, 일본뇌염), 하절기 휴게시간 연장 운영



우수 사례

- 제안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유해 위험요소의 감소대책 100% 실시, 유지 관리로 위험성 감소 및 안전의식 향상
-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매주 금요일 EYE LOVE DAY (안전을 보는 눈, 안전점검의 날) 등 운영

성과 및 기타 사항



주요 성과

- 위험성평가 우수업체 인정(안전보건공단, 2014년)
-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안전보건공단, 2016년)



사회적 기여 활동

착한벗 사회봉사단 운영 (환경지킴이, 소외이웃 지킴이, 지역사회 지킴이 활동 등)



18
국무총리 표창

(주)PMS 조원국 대표이사

바꿀 수 없는 절대가치, 안전

(주)PMS는 POSCO광양제철소의 기계설비에 대한 정비, 크레인 운영, 세트 수리 작업 등 핵심기계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외주 파트너사이다. 2009년 창립 이후 POSCO광양제철소에 없어서는 안 될 회사로 성장했다. 특히 2014년 6월 7일부터 2016년 10월 29일까지 무재해 3배수를 달성하며, 안전에 있어 여타 협력사의 귀감이 될 뛰어난 업적을 쌓고 있다.


소재지
전남 광양시
목포사랑길 20-26


업종
기계장비업


직원수
179명
(경영진 3명 포함)


2016년 산재예방 투자액
11억 원


특징
POSCO(광양)
협력업체


전화번호
061-798-6805

잊지 못할 그날의 사고

2012년 5월 5일, 어린이날이었던 그날, POSCO광양제철소에서는 한창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주)PMS 역시 마찬가지였고, 두 명의 작업자가 크레인 작업에 투입됐다. 한 명은 리모트 컨트롤러로 중량물을 내려놓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크레인으로 옮겨온 중량물의 결박을 풀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잠시 뒤 리모트 컨트롤러를 조작하던 작업자가 오조작을 했다. 그동안 사용하던 리모트 컨트롤러와 다른 모델이었던 탓에, 무의식 중에 예전 습관대로 손가락을 움직인 것이다. 그 오조작은 결박을 풀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작업자의 협착 사고로 이어졌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사고 이후 POSCO광양제철소 안의 모든 리모트 컨트롤러는 단일 모델로 교체됐다. 작업의 표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재해가 잊혀지지는 않았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회사는 개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그런 사고가 발생했으니...” 당시를 떠올리는 조원국 대표의 표정은 여전히 무겁기만 하다.

“물론 그 전에도 안전에 대한 이야기는 적지 않게 했습니다. 막상 사고가 발생하니, 그것은 그저 구호였을 뿐이라는 자책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요.” 조원국 대표는 그때부터 안전에 대해 전혀 새롭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말로만, 지적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말이다. 물론 조원국 대표 혼자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새벽회의가 열리는 까닭

조원국 대표는 현장직업자들에게 자기주도 안전 마인드를 정착시킬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관리감독자는 누구보다 부지런히 현장을 돌며 SAO활동(안전행동 관찰)을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발로 뛰는 만큼 안전이 확보된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주)PMS 모든 관리감독자들의 회의는 모두 새벽에 열린다. 한창 작업이 진행되는 낮에는 모두 현장에서 작업자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활동에 대한 정확한 평가분석을 실시하고 그를 바탕으로 안전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는 게 조원국 대표의 설명이다. “이론보다 더 중요한 게 실행이고, 습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국내 산업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빨리빨리’입니다. 거기에 방심까지 더해지면 그보다 더 불안정한 상황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게 더 편하니까, 라는 생각으로 넘어가는 일이 빈번했지요. 안전이 습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안전 마인드’가 정착되는 데에 5년이 걸렸다고 한다. “현장을 돌아보면 정리정돈이 잘 된 곳이 있고, 이것저것 벌려놓고 작업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비교가 될 정도로요. 저희 임직원들의 작업현장은 더할 나위 없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청인 POSCO광양제철소에서도 저희 임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을 베스트 사례로 선정해 타 협력업체의 귀감으로 삼고 있습니다.”



매주, 매월, 매년 잊지 않는 것

(주)PMS 임직원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조원국 대표로부터 편지를 받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당부지만, 조원국 대표가 생각하는 경영 포인트, 성장 비전 역시 편지 내용에 포함돼 있다. 창립 이래 단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이어온 전통이다. 많은 임직원이 그 편지를 통해 덧글을 나누고 소통을 한다. 덕분에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팀워크는 강해졌다. 한 달에 한 번은 부서별 고위험 수작업 개선활동에 대한 발표가 있는데, 분기별 종합평가를 통해 시상이 이뤄진다. 다만 조원국 대표는 “실적이 좋지 않은 부서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점을 웃으며 강조했다. 상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져야 동기부여가 된다는 뜻이다.

일 년에 한 번, 잊지 말아야 할 재해가 있었던 5월 5일 새벽에는 모든 임직원이 모여 안전산행을 실시한다고 한다. 새벽 일찍 출발해 정상에 올라,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또 다른 한 해의 안전을 서로에게 약속하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자리라고 한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 안전작업을 위한 두 개의 특허를 보유하게 됐다. 쇳물을 녹이는 고로 내에서의 작업을 더욱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다. “아직 2%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직 완전한 습관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디더라도 그런 부분은 꾸준히 보완해야지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내가 다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회사가 아무리 성장을 한다 해도 임직원에게 재해가 일어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안전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습니다.”

Safety Talk

“안전의 밑바탕에는 상호존중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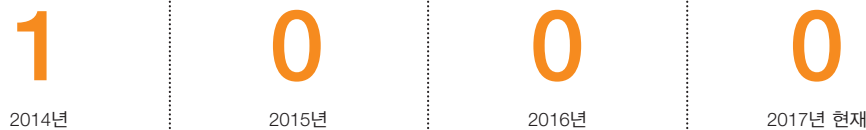
(주)PMS 조원국 대표이사

안전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동료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더해지면 서로의 안전을 챙겨주는 조직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특히 관리감독자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하나의 팀이고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안전에 대한 지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평소 불안정한 행동이 안전한 습관으로 변화할 수 있으니까요.



한눈에 보는 PMS(주)의 산재예방 활동

PMS(주)의 산업재해 현황



안전보건경영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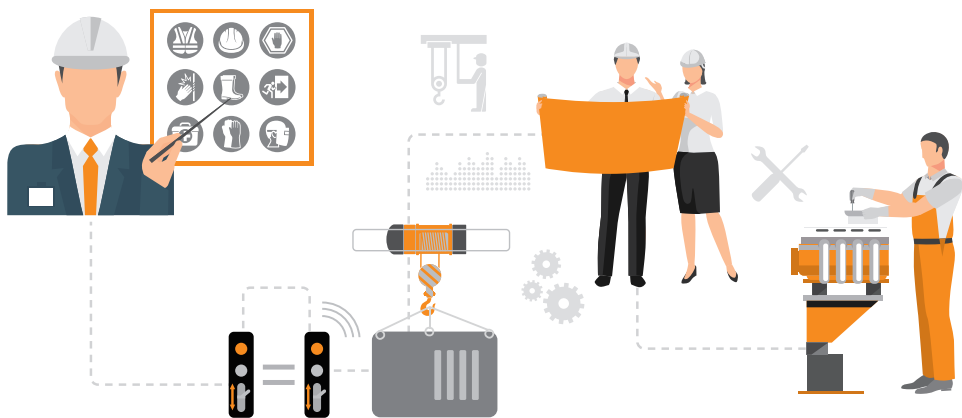
안전보건경영체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인증
(2009년)



산업재해 대응체계
사내 돌발 대기조
운영 등



안전보건 활동



총괄 현황
 • 법정 안전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4명, 보건관리자: 대행)
 • 안전관리담당부서장: 1명/
 관리감독자: 35명/
 안전담당자: 3명
 • 안전보건교육: 8개 교육 과정 운영



원·하청 상생협력
 POSCO의 협력업체로
 원·하청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2014년)



보건분야 활동
 • 보건예산: 0.8억 원
 • 보건분야 활동:
 근골격계질환 예방 스트레칭, 특수 분야
 근로자 진단, 물리치료실 운영 등



안전분야 활동
 • 안전예산: 3억 원
 • 주요 활동:
 Safety Talk 활동
 (안전정보 공유·취약분야 보완 활동),
 안전 퀴즈대회
 • 주요 사업:
 월별 무재해 캠페인,
 월간 안전 장인 선발,
 '아차' 사고 경진 대회 등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 Safety Iron Rules:
 현장에서 지켜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안전철칙 10가지
 • 안전역량 향상을 위한
 팀파워 활동

성과 및 기타사항



주요 성과
 • 무재해 3배수 달성
 (2014.6.7 ~ 2016.10.29)



안전문화 확산
 Yellow Cap 제도 운영,
 매월 4일 테마별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안전심리 검사 프로그램 실시



사회적 기여 활동
 지역협의체 통한 중소기업장
 기술 지원 활동,
 설 연휴 양로원 방문 및 불우이웃 돕기 등



19
국무총리 표창

(주)대진 장지수 대표이사

긍정 에너지로 만드는 안전문화

1997년 설립된 (주)대진은 POSCO광양제철소의 협력업체로, 현재 약 29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천정크레인 운전과 냉연·열연분야 조업지원, 품질시험용 시험편 가공 등이 전문 분야인데, POSCO광양제철소의 핵심 외주사로 인정받으며 2017년 5월 19일 현재 무재해 13배수를 달성했다. 탁월한 능력에 수준 높은 안전문화까지 장착한 셈이다.


소재지
전남 광양시
목포사랑길 20-26


업종
제조/운수업


직원수
285명
(경영진 2명 포함)


2016년 산재예방 투자액
4억 2,878만 원


특징
전 임직원
금연 사업장 구현


전화번호
061-797-9577

오래 전부터 체득해 온 가치

장지수 대표이사는 1997년 (주)대진을 창립하기 전까지 POSCO에서만 25년을 근무했던, 그야말로 제철에 모든 것을 바친 사나이다. 제철소의 생리와 위험요소에 대해 누구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런 그가 '안전'에 두 팔 걷고 나선 이유는 일본에서의 근무 경험 때문이다.

"POSCO오사카가공센터(POSCO-JOPC)에서 10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표준과 기준을 철두철미하게 준수하는 일본의 안전의식과 문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매뉴얼에 적힌 내용이 글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모습은 충격적이기까지 했지요." 그랬던 그였기에, (주)대진을 창립하며 가장 앞세운 경영가치가 '안전'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가장 먼저 진행한 작업도 바로 안전을 확립하기 위한 작업, 바로 표준 매뉴얼 제작이었다.

"일본은 지진과 태풍 등 재해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재해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일은 현저히 적지요. 저는 그 이유가 안전 매뉴얼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은 오롯이 혼자만의 것이었다. 다른 임직원들, 특히 현장직업자들에게는 그런 안전 마인드를 어떻게 심어줄 수 있었을까.

긍정 에너지로 이룬 행복한 직장

장지수 대표이사는 현장에 '긍정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애썼다. 조금은 엉뚱한 소리처럼 들렸다. "POSCO의 안전관리 기준은 국내 최고를 넘어 전 세계 어느 기업과 비교해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협력업체들은 따로 안전관리계획을 만들 필요가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실행'입니다. 그 실행의 밑바탕이 되어줄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던 것이죠."





고민의 결과, 실패에 기죽지 않고 그것을 개선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긍정적 에너지에서 답을 찾았다. 안전에 대한 긍정적 에너지를 통해 실행, 습관, 생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루에 다섯 가지 일에 감사하는 일일 5감사 글쓰기, 동호회 활동 장려, 매월 진행되는 문화의 날 후원, 임직원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운동회 개최 등이 긍정 에너지의 소소한 출발이었다.

이와 함께 안전 분야에 대한 회사의 투자도 뒤따랐다.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4개 사업장에 시설투자를 진행하는 동시에 262건의 작업환경 개선을 이뤄냈다. 특히 철강코일을 이송하는 작업 중 발생하는 비정형 작업을 매 분기별 발굴해 총 60건의 표준화를 이뤄냈다. ㈜대진의 조직구성원 모두가 긍정적인 곳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변모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날들이 쌓여 2017년 5월 현재 무재해 13배수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각 기관과 단체에서 수여하는 안전과 관련된 각종 수상의 주인공으로 우뚝 섰던 것은, 그저 과정의 일부였다.

멀리 보면 가장 빠른 길

장지수 대표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존재는 바로 ㈜대진의 임직원. 그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그가 지난 2009년부터는 금연운동을 시작했다. POSCO광양제철소의 모든 구역 내에서 금연이 시행됐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다.

“물론 담배를 끊으면 당장 건강에 좋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이로운 훌륭한 선택이지요. 재미있는 것은, 흡연이 안전과도 연관이 된다는 점입니다. 흡연을 하



게 되면 작업 중 빠져나가 몰래 담배를 피우느라 마음이 급해지고 그로 인해 불안전한 상황이 만들어지니까요.” 금연운동이 실시된 이후 2010년 93명, 2011년 77명, 2012년 52명의 임직원이 담배를 끊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개인별 100만 원씩. 담배를 피우지 않던 임직원은 프랭크 운동 자세 20분 유지에 성공할 시 금연자와 동일한 포상을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재 ㈜대진의 임직원 295명 중 흡연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한다.

“구성원들에게 회사는 떠올리기만 해도 기분 좋은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안전하고 건강해야 하며 지속가능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곳, 일하면서 다칠 걱정 없는 곳이 되어야 하지요. 저는 ㈜대진을 그런 곳으로 가꿀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대진을 세울 당시 슬로건이 “다치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자”였다고 한다.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인력과 비용, 시간에 있어서 많은 투자가 있었다. 장지수 대표는 그런 투자를 모두가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자부한다. “안전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당장은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멀리 본다면 결코 그렇지 않으니깐요. 안전만큼 효율적이고 낭비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Safety Talk

“안전은 긍정에서 비롯됩니다”

㈜대진 장지수 대표이사

안전은 언제나 머릿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명제입니다. 산업현장에서는 더욱더 그래야 하지요. 왕도는 없습니다. 그저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긍정 에너지입니다. 불안전 요소에 대한 지적, 개선활동 모두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시선을 바탕으로 두어야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조직이 긍정적이라면, 그 자체로 안전을 위한 첫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셈입니다.



한눈에 보는 (주)대진의 산재예방 활동

(주)대진의 산업재해 현황

0

2014년

0

2015년

0

2016년

0

2017년 현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CEO 안전 메시지
(안전 지침)
안전보건경영
체계 확립을 통한
무재해 사업장 실현



안전보건경영체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재인증
(2017년)



산업재해 대응체계
비상대응
조직 운영 등



안전보건 활동



총괄 현황
• 법정 안전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 안전관리담당부서장: 1/관리감독자: 40/안전담당자: 1
• 안전보건교육: 10개 교육 과정 운영



원·하청 상생협력
원·하청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2015년)



안전분야 활동
• 안전예산: 13억 원
• 주요 활동:
안전 골든벨 행사, 위험성 평가,
Near Miss 경진대회 등
• 주요 사업:
감사나눔 활동, 안전교육 및 훈련 내실화,
산업안전 보건법 이해와 준수활동



보건분야 활동
• 보건예산: 2억 원
• 주요 활동:
근골격계질환 예방 스트레칭,
건강증진 활동
(근로자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인증)



우수 사례
수작업 근절을 통한 개선활동 전개,
도금 시편 테스트장 개선,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개선,
안전관리기법 개발 운영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성과 및 기타사항



주요 성과
• 안전경영대상 수상(2016년)
• 무재해 13배수 달성
(2006.1.12 ~ 2017.5.19)



안전문화 확산
모든 작업의 매뉴얼화를 통한
표준준수 습관화, 자율안전위원 활동/
일일 안전지킴이 활동 등



사회적 기여 활동
사랑나눔 봉사기금 조성 및 후원,
자매마을 지원,
사회복지단체 6개소 재능봉사 및 후원



20
국무총리 표창

SK하이닉스(주) 청주공장 김영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한 포괄적 안전보건 시스템 확립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재해를 인과관계로만 따지지 않고 포괄적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SK하이닉스 청주공장. 따뜻한 안전보건 문화를 확산시키는 일이 회사의 가치 제고는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임을 잘 알고 있다. 글로벌 기업답게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이 임직원 및 협력사 1만 명의 안전보건을 선진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은, 그래서 더욱 모범사례로 꼽힌다.


소재지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337


업종
제조업


직원수
6,618명
(경영진 17명 포함)


특징
협력업체
안전보건활동 지원


홈페이지
www.skhyunix.com


전화번호
043-280-2073

포괄적, 합리적 원칙을 따르는 안전문화 구축

플래시 메모리를 생산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의 최근 3년 산업재해 사례는 총 10건. 이 중 작업 중 산업재해는 단 2건으로 넘어질 때 손가락을 잘못 짚어 다친 경미한 사고다. 그 외 8건은 체육대회와 같은 야외 행사나 야유회 중에 또는 보행 중, 휴게 중에 일어났다. “작업 중 산업재해의 경우 회사의 미비한 안전관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주의에서 일어났어요. 다른 사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 사고가 업무 시간 내에 발생했다면 생산성과 직결되므로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포함 1만 명 근로자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김영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안전보건 관련 제도를 매우 선도적이고 선진적으로 체계화시켰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새로운 변화와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회사의 글로벌 마인드와도 맞물린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과관계를 따지기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폭넓은 상관성에 기반을 두고 합리적인 원칙을 적용하면 안전보건뿐만 아니라 노사 간 화합까지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외부 전문가 4명, 김영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비롯한 내부 직원 3명으로 구성된 ‘산업보건지원보상위원회’는, 그러한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검중위 대상자에게 ‘포괄적 지원보상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건강 보호와 배려’, ‘정당하고 합리적인 차이 인정’, ‘공평의 원칙’을 지켜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선진 안전문화 구축을 위한 선제적 투자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이 포괄적 안전보건 시스템을 체계화하는데 중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영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다. 일반직 사원으로 입사해서 2005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되었고, 2001년부터 활동해온 노동조합에서 현재 사무국장까지 겸하고 있다. “노동조합 활동과 병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안전보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관련 일을 진행할 때 추진력이 더 생겨요. 특히 노사가 협력해 나갈 경우에는 그 효과가 더 크게 돌아오지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과감한 투자 유도, 안전교육을 통한 사업장 무재해 운동,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안전’과 ‘보건’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했다. 설문조사를 통한 노사합동 안전개선 TFT 운영, 언제든지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One-Stop 제도,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체육센터 하이누리관 건립, 심리상담실 마음산책과 부속의원 및 물리치료실의 안전보건 시설 등으로 선도적이고 선진적인 안전문화를 정착시켰다. 이 밖에도 주기적인 비상대응 및 민관합동 훈련 실시, 주 통행로 미끄럼방지 조치 및 보행자 안전통행로 확보, 산업보건검증위원회 조사활동을 통한 127개 개선과제 권고, 노사합동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안전작업허가제 시행, 무선 추적 시스템인 스마트 태그(Smart Tag)를 활용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 및 실종인원 실시간 집계, 소방안전 설비 실시간 점검 이력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했다.



안전 마인드 장착한 노사의 윈윈 협력

“2013년 9월 3일 안전, 보건, 환경의 영어 약자를 따서 이름 지은 체험교육관 SHE(Safety, Health, Environment)를 건립했어요. 회사와 장시간 조울 끝에 성사된 것인데, 이튿날 중국 우시공장에서 화재가 나서 금전적 손실이 컸어요. 그 화재로 인해 안전에 대한 회사의 마인드가 많이 변했고, 체험교육관의 건립 목적도 당위성을 갖게 되었지요.”

화재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 관련 인원을 보강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안전은 사고가 난 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해야 한다는 상식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반도체 제조업체로 30년을 이어온 SK하이닉스와 올해로 입사 29년 차인 김영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이처럼 함께 해온 지난 세월 내내 끊임없이 상의하고 조율하며 협력해왔다. 앞으로도 노사가 힘을 합쳐 안전한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Safety Talk

“회사경영도 안전, 산업현장도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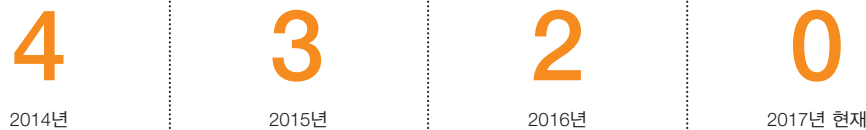
SK하이닉스㈜ 청주공장 김영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2008년 회사가 어려울 당시 매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 월급 동결, 무급 휴직까지 내걸면서 전 사원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지킨 회사라 더욱 애정이 깊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청주노동조합 사무국장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겸임하면서 안전보건에 대한 이해도와 추진력이 높아졌고, 그것을 바탕으로 안전문화 정착과 관련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해올 수 있었습니다. 회사 경영도 안전, 산업현장도 안전한 가운데 저도 내년이면 입사 30년을 맞습니다. 앞으로는 안전보건을 통해 사회적 공헌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눈에 보는 SK하이닉스(주) 청주공장의 산재예방 활동

SK하이닉스(주) 청주공장의 산업재해 현황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경영체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2015년),
OSHAS18001(2015년)



산업재해 대응체계
사내 부속의원 운영 및
안전보건센터 비상대응
24시간 운영

안전보건 활동



총괄현황

- 법정 안전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6명, 보건관리자: 6명)
- 안전관리담당부서장: 83명 / 관리감독자: 401명 / 안전담당자: 156명
- 안전보건교육: 5개 교육 과정 운영



원·하청 상생협력
원·하청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2014년~현재),
공생협력 프로그램 A등급(2016년)



안전분야 활동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 정기적 안전·보건 이슈 확인 등
관리 강화 차원의 산업안전보건
실무협의회 설치·운영
- 구성원의 직접적인 참여 및
현장감을 살린 'SHE 체험교육관' 구축



보건분야 활동

- 직무-노출 중심의 사전예방
보건관리 추진 위한 JEM
(Job Exposure Matrix) 구축
- 건강증진·건강검진·사후관리
연계 건강관리 서비스 THP
(Total Healthcare Program) 제공



우수 사례

- Golden Rules:
구성원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위
한 안전규정 10개 항목 지정
- 비상상황 발생시 대피 및
실종인원 실시간 Monitoring을 위한
Smart Tag 구축 운영(2016년~)

성과 및 기타사항



주요 성과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인증
(2011년 인증, 2014년 연장)



안전문화 확산

- Golden Rule 캠페인,
SHE 정기안전교육자료 배포(1회/월),
'아차'사고 사례 공유 등



협력사 안전보건수준 향상 지원

- MSDS 교육 등 안전·보건교육 및
특별안전보건교육 자료 제공
- 비상대피 합동훈련
- 협력사 구성원 건강예방 적극 지원



21
국무총리 표창

(주)건우 정병복 안전관리자 모두가 함께 만든 6,294일의 무재해 신화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제철소 특성상 누군가는 산업재해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란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를 현실로 만든 현장이 있다. 무재해 24배수로 재해 없는 일터를 만들어가고 있는 (주)건우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정병복 안전관리자가 있다.


소재지
전남 광양시 옥곡면
신금로 240번지


업종
제조업


직원수
131명
(경영진 2명 포함)


2016년 산재예방 투자액
3억 3,800만 원


특징
POSCO광양제철소
협력업체


전화번호
061-790-5109

POSCO광양제철소 최고의 안전 파트너

(주)건우는 1994년 설립된 POSCO광양제철소의 협력업체다. 기계 정비와 벨트 컨베이어 사업부문으로 나누어 POSCO광양제철소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설치와 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난 2001년 KOSHA 18001(안전보건경영 인증 사업장)을 획득하며 안전에 관한한 그 어느 곳보다 뛰어난 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현재 POSCO광양제철소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는 총 59개사입니다. 조업지원, 기계정비, 전기정비, 운송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사들이 서로 협력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리고 저희 (주)건우는, 지난해 전체 협력사 중 안전평가에 있어서 전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기 자랑 같아 영 쑥스럽다”면서도 정병복 안전관리자는 뿌듯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주)건우는 이미 POSCO광양제철소로부터 2012년 정비부문 최우수 파트너사로 선정되는가 하면 2014년에는 고용노동부의 Best Champ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5년에는 산업재해 예방의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2016년에는 노사문화대상 부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으니, 회사와 자신의 업무,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 보람을 느끼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일 것이다.

튼튼하게 쌓아올린 안전의식이 만든 무재해 일터

“제철소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중량물과 사투를 벌이는 현장이기도 하지요. 당연히 안전을 담당해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언제나 긴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병복 안전관리자의 긴장감은, 현장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었다. 불안정한 근무형태나 환경을 발견하게 되면 그 즉시 지적과 함께 개선을 위한 공식적인 페이퍼 작성을 통한 공론화, 공유화에 앞장섰다.

“사실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지적이나 개선 활동을 관행적으로 여기는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다’는 항변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절대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는 일이었죠.”

첫 사회생활을 (주)건우에서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무재해 사업장을 이끌고 있는 정병복 안전관리자 역시 현장과 의견이 상충하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었다. “한때는 좀 더 강하게 몰아붙이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며 안전보다는 실적이 먼저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강해지면서 그 간 쌓아올린 공동 탐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절망감을 느끼기도 했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실적이 올라간다 한들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한, 그것이야말로 사상누각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정병복 안전관리자였다.

“인내하면서 더더욱 안전을 강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진심이, 현장에 계신 작업자들에게 어느 정도는 전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안전의식 강조를 되새긴 날들이 쌓이고 쌓이자 어느새 무재해 24배, 6,294일을 달성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은 셈이다.

“안전이라는 것은 모든 게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교육과 OJT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실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수상은 제 몫이 아니라 현장에서 매뉴얼을 철저하게 지켜주신 작업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 스스로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 안전으로

1998년 이후 지금까지 안전관리자 외길을 걷고 있는 정병복 안전관리자는 이제 감성으로 다가서는 안전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탈의실 락커에 가족사진과 함께 안전에 대한 의지를 담은 문구를 붙여놓고, 가족들로부터 가장의 안전을 희망하는 편지를 받아 게시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안전이라는 게 나 혼자만이 아닌, 가족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 인식이 점점 널리 퍼지기 시작했지요.”

그 스스로도 이제 현장의 작업자들에게 다가설 때는 주머니 속의 사탕부터 꺼내들며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한다고 한다. 물론 불안전 사항을 냉철하게 지적해야 하는 자신의 책임은 잊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재해예방을 위한 1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내 고 위험 수작업을 반자동화로 개선할 수 있었다.

“사실 안전에 관한 투자 실행 여부는 경영자의 의지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상당히 많은 도움을 회사 측으로부터 받고 있



는 셈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각 과별로 최고급 안마의자를 설치했는데, 고중량 작업을 하는 현장작업자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병복 안전관리자 역시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실제 피부로 와 닿는 활동이, 작업자들로 하여금 더 긍정적인 모습을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정병복 안전관리자는 보건에 관련된 사항도 더욱 꼼꼼하게 챙길 계획이다. 근속년수가 길어지는 만큼 현장작업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이 많아질 시기가 도래했다는 판단 때문이란다.

“지금은 안전이 생활화되어가는 과도기라 생각합니다. 기계를 멈추지도 않고 정비하던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개선할 부분은 남아 있거든요. 더 이상 지적할 것이 없어지는, 안전이 생활화된 꿈 같은 현장이 만들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afety Talk

“안전이 생활이 되는 현장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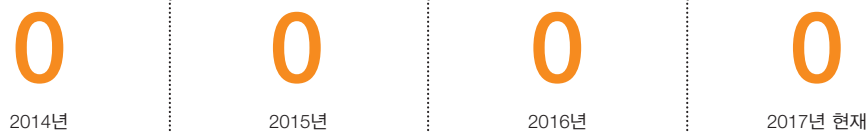
㈜건우 정병복 안전관리자

무재해 24배수라는 영광스러운 기록은 우리 현장작업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 믿습니다. 안전에 대한 계획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그것을 현장에서 실행에 옮겨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요. 요즘은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어서 현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곧 안전이 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주)건우의 산재예방 활동

(주)건우의 산업재해 현황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경영체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인증
(2001년)



산업재해 대응체계
사내 응급시설 및
응급구조반 운영 등

안전보건 활동



총괄 현황
 • 법정 안전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 안전관리담당부서장: 1명/
 관리감독자: 10명/
 안전담당자: 1명
 • 안전보건교육:
 4개 교육과정 운영
 (정기안전, 특별안전, 관리감독자,
 신입사원 교육)



안전분야 활동
 • 안전예산: 2억 9,000만 원
 • 주요 활동:
 도상훈련(MPS :Maintenance
 Preview Sheet)으로 불안전 요인과
 위험요인 제거방법을 기록해봄으로써
 잠재위험을 발굴하는 능력 개발,
 안전 골든벨 대회 개최
 • 주요 사업:
 월별 무재해 캠페인, 그룹별 안전포상,
 안전우수자 해외연수 등



보건분야 활동
 • 보건예산: 4,800만 원
 • 주요 활동: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 보호구 지급,
 특수 분야 근로자 진단, 전신 안마기 등



원·하청 상생협력
 원·하청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2017년)



우수 사례
 • SAO(Safe Acts Observation,
 안전관찰활동):
 현장에 불안정한 상태, 행동을
 관찰하고 계도하는 활동
 • 작업 중 TBM:
 작업 중 위험요인 변동사항 작업자 간
 위험내용 공유 활동

성과 및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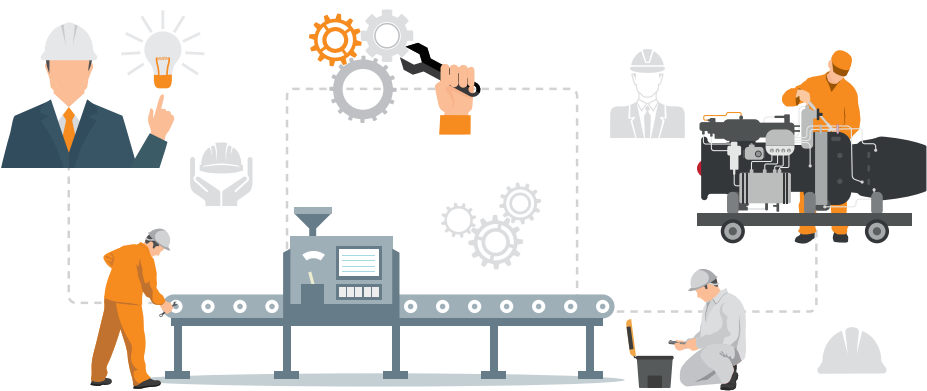
주요 성과
 • 산업재해예방 산업포장 대통령상 수상
 (2015년)
 • 노사문화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2016년)
 • 무재해 24배수 달성
 (1999.9.22. ~ 2016.12.13)



안전문화 확산
 매월 4일 테마별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안전 캠페인 실시



사회적 기여 활동
 감사나눔 통장 운영 활동,
 양로원 방문(실버빌),
 불우이웃 돕기 및
 자매마을 봉사활동 등





22
국무총리 표창

현대교통(주) 이병열 과장 맨투맨 교육으로 안전의식부터 혁신

정비 기기의 안전한 사용법을 숙지시키고 유해 · 위험 기계를 안전장비로 교체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만반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대교통(주). 하지만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전지식도 습득할 수 없기에 맨투맨 교육과 브레인스토밍 기법으로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4년 8개월 동안 무재해 100배를 달성했다.



소재지
서울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289



업종
운수업



직원수
206명



특징
노사 참여 자체
안전관리체제 구축



홈페이지
hyundaibus.modoo.at



전화번호
02-302-3791

편리한 장비도 안전수칙 어기면 흥기

서울시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를 중심으로 5개의 지선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현대교통은 206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시내버스 운송업체다. 보유하고 있는 78대 전 차량이 천연가스 CNG 차량이며, 65개 서울 시내버스 운송업체 중 안전보건 교육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버스 운송업체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산업재해는 주로 정비현장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면 공구의 표면을 연삭하는 탁상 그라인더를 사용하다가 손가락을 다치거나, 리프트 및 사다리 사용 중에 추락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현대교통 안전관리과 이병열 과장은 리프트, 전동 공구, 검차시설, 고압세차기 등 각종 기계 기구의 안전한 사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공구나 장비들은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잘못 사용하면 흥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해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안전수칙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한편, 노후 기계를 미리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다. 노후 기계는 자칫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교통은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해 리프트, 압력용기 등 노후한 위험 기계 기구를 철거하고, 화상 위험이 있는 고압세차기 및 탁상용 그라인더 등 오래된 기계를 적시에 교체하고 있다. 또한 수작업으로 무리하게 타이어를 교체하다가 허리나 손목을 다칠 수 있으므로 대형 타이어 탈착기를 도입하고, 무거운 산소병을 운반하다가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산소용접기를 스포트 용접기, 전격방지내장형 아트용접기로 바꾸는 등 사업장 내 유해 · 위험 기계 기구를 안전장비로 교체하는 데도 적극적이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작업 효율도 높일 수 있다.



의식을 바꿔야 세상이 바뀐다

아무리 안전장비를 도입하고 안전수칙 자료를 제작해 배포해도 작업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사다리를 사용할 때는 한 계단 한 계단 안전한지 점검하며 오르내려야 하는데 한꺼번에 뛰어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스가 후진 중인데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기도 하고요.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안전교육을 실시해도 소용없는 것이죠. 안전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전지식도 습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이병열 과장은 ‘의식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버스 운행 전후 TBM 시 안전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10명이든 2명이든 직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는 잊지 않고 안전을 당부한다. “기사들의 교대시간이나 대기시간에 잠재사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한두 명씩 맨투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기물 파손 등이 발생한 경우도 맨투맨 교육을 실시하고요. 맨투맨 교육은 그룹 교육보다 효과가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매일 안전교육이 진행되지 않는 날이 없다. 아무리 좋은 말도 매일 반복하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도입했다. 브레인스토밍 시간에는 비판 금지, 자유 발언, 대량 발언, 수정 발언의 원칙을 적용해 직원들이 자유롭게 산업재해 절감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노사합동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현대교통은 2012년 8월 23일부터 현재까지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작업 공정별로 유해·위험 요소를 파악해 철저히 사고예방 대책을 수립한 덕분이다. 현대교통은 유해·위험 요인이 어떤 곳에서 발생하는지, 현재의 안전대책은 적절한지, 위험요인이 재해로 발전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재해로 이어질 경우 재해의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체계적으로 측정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위험 제거 및 발생 빈도 감소 대책과 사고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무재해 달성을 이뤘다. 이러한 위험성평가 작업 시에는 노조와 회사 대표가 함께 참여해 노사합동으로 재해감소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안전의식으로 완전 무장한 현대교통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안한 사업장을 구축해 무재해 사업장의 기록을 이어나갈 것이다.

Safety Talk

“체계적인 산재예방 활동에 총력”

현대교통㈜ 이병열 과장

작업장의 안전을 위해 복장 단정, 정리정돈, 청소 청결, 점검 확인, 전심 전략의 5C를 도입하고, 작업 전 기계 기구 점검 등 위험예지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 지붕 위 에어컨 작업, 내압압력용기 작업, 유리 탈부착 작업 등 무리하게 힘을 써야 하는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산업안전기사, 교통안전관리자, 가스기능사 등 각종 안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산재예방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로 산재사고 제로, 무재해 사업장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현대교통(주)의 산재예방 활동

현대교통(주)의 산업재해 현황

0

2014년

0

2015년

0

2016년

0

2017년 현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CEO 안전 메시지 (안전 지침)

경비철감, 완벽한 정비,
사고예방, 복지향상
서비스 개선, 청화운동



안전보건경영체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산업재해 대응체계 사내 응급시설 및 5분 대기조 2명 운영 등



안전보건 활동



총괄 현황 • 안전관리자: 1명



안전분야 활동 • 주요 활동: Safety Talk 활동(안전정보 공유·취약분야 보완 활동), 안전 퀴즈대회 • 주요 사업: 월별 무재해 캠페인, 월간 안전 장인 선발, '아차' 사고 경진 대회 등



보건분야 활동 • 주요 활동: 근골격계질환 예방 스트레칭, 특수 분야 근로자 진단, 물리치료실 운영 등



우수 사례 Safety Golden Rules: 현장에서 지켜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안전 철칙 8가지

성과 및 기타사항



주요 성과 • 무재해 100배수 달성 (2012.9.23 ~ 2017.2.27)



안전문화 확산 Yellow Cap 제도 운영, 매월 4일 테마별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안전심리 검사 프로그램 실시



사회적 기여 활동 지역협업체 통한 중소기업장 기술 지원 활동, 설 연휴 양로원 방문 및 불우이웃 돕기 등



23
국무총리 표창

태원건설산업(주) 1-1생활권단지조성공사 장인찬 안전관리자

안전규정 준수는 내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일

대전의 향토 건설업체 태원건설산업은 직접 안전보건 UCC 동영상 제작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열의가 넘치는 기업이다. 특히 가족의 행복에 초점을 맞춰 감성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이 주목을 끈다. 이를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마음으로 부터 우러나오게 하고 있다.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남로7번길 14-7


업종
건설업


직원수
70명
(대표이사 포함)


2016년 산재예방 투자액
6,000만 원


특징
협력업체
안전관리 지원 활동


홈페이지
www.taewoncon.co.kr


전화번호
044-868-6251

건설안전·보건 UCC 경진대회에서 대상 수상

고깔모자를 쓰고 옹기종기 둘러앉아 생일축하 노래를 부르는 단란한 한 때의 가족, 하지만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던 가장은 공사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만다. 더 이상 어린 딸을 안아줄 수 없는 가장은 실의에 빠진다. 가장의 안타까운 마음에 공감해서인지 그 뒤로 이어지는 문구가 가슴에 절절하게 와 닿는다. '내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일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에서 시작됩니다.'

지난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공동 주최하고, 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가 주관하는 '2016년 건설안전·보건 UCC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태원건설산업의 UCC 내용이다. 본 영상을 제작한 태원건설산업 관리부 안전팀의 장인찬 안전관리자는 어린 아들과 딸, 부인까지 총 출연시키며 정성껏 동영상 제작했다. "연기는 어설프지만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내용입니다. 산재사고로 인한 가족의 고통은 겪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지만, 가족이 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동영상을 보고 경각심을 갖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태원건설산업은 1998년 소규모 하도급업체로 시작해 건축공사, 조경공사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며 대전지역을 대표하는 건설업체로 발돋움했다. 현재 세종시에서만 단독주택부지 조성공사를 비롯해 상가 건축 및 조경공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 장인찬 안전관리자는 2016년 2월부터 진행된 세종시 1-1생활권 단독주택부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다. 직영공사 현장이라 세세하게 관리할 부분이 많지만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무재해 기록을 지켜나가고 있다. 태원건설산업은 이러한 기세를 몰아 2018년 2월 완공 때까지 무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감성 소구로 안전교육 효과 증대

태원건설산업의 안전교육은 앞서 소개한 UCC 내용과 같이 가족을 모티브로 감성적으로 소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외 선진국에 견주어 국내 건설업체들의 안전시설 투자비용은 적지 않다. 하지만 산업재해 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민한 장인찬 차장. "작업자 및 관리감독자들의 안전의식 수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해도 '이렇게 30년간 일했지만 별일 없었다', '공기를 맞추려면 어쩔 수 없다'라는 대답이 돌아오곤 합니다."

장인찬 안전관리자는 논리적으로 안전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보다 감성에 소구하는 것이 교육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 안전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딱딱한 안전구호 제창 대신 어머니나 가족의 이름을 큰소리로 외치며 조화를 마친다. 이렇게 감성적인 방식으로 안전교육의 방향을 선회하자 직원들의 태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가족에 대한 동영상으로 안전교육을 시작하니 교육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가끔 눈물을 흘리는 직원들도 보였다.

장인찬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의 주제를 가족으로 삼은 것은 과거 한 현장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목도했기 때문이다. “한 직원이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결국 아들을 기다리다 사망했는데 오열하는 아들을 보며 당시 어렸던 제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의 고통이 느껴져 다시는 현장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에 대한 영상은 백 마디 말보다 많은 의미를 전달했다. 이를 깨달은 장인찬 안전관리자는 현장 3개소(안전교육장, 감독실 등)에 안전 TV를 설치했다. 안전 TV에서는 자체 제작한 안전보건 영상과 안전보건 UCC 대회 역대 수상작들, 기타 관련 영상들이 상시 방영된다.

회사 성장에 따라 안전의식도 성장해야

현재 태원건설산업은 세종시 안전관리자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협의회는 대형 건설업체 중심으로 구성되지만 산재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지역협의체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18001



인증을 받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태원건설산업은 2020년까지 연 매출 2,000억 원을 달성해 100대 건설업체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역협의회 활동이나 KOSHA18001 인증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지만 회사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당연히 그에 걸맞게 안전의식도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견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힘차게 도움닫기를 하고 있는 태원건설산업은 그에 따라 직원들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와 개선활동에도 소홀함이 없을 것이다.



Safety Talk

“안전 캠페인으로 안전 일심동체”

태원건설산업(주) 장인찬 안전관리자

사내 안전관리자 협의체를 결성해 안전정보 및 기법, 노하우 등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현장의 우수한 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무재해 운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별로 100일 무재해를 실현할 때마다 우수 직원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안전 캠페인 및 안전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수 슬로건으로 뽑히면 포상금과 함께 현장에 게시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가 안전으로 화합하는 모범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태원건설산업(주)의 산재예방 활동

태원건설산업(주)의 산업재해 현황

1

2014년

1

2015년

2

2016년

0

2017년 현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경영체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산업재해 대응체계
지역별 사내 협의체 운영으로
재해발생 시 즉각 대응

안전보건 활동



총괄 현황

- 법정 안전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7명, 보건관리자: 0명)
- 안전관리담당부서장 1명,
안전담당자 6명
- 안전보건교육: 1개 교육과정 운영



안전분야 활동

- 주요 활동:
Safety Cross 점검활동
(안전정보 공유·취약분야 보완 활동)
- 주요 사업:
무재해 100일 캠페인, 사내 자체 안전교육,
전문기관 안전교육 이수 등



보건분야 활동

- 주요 활동:
휴게시설 및 질병성재해 예방활동 운영,
특수 분야 근로자 진단 등



우수 사례

'가족'을 모티브로 감성안전 실천,
자체 안전영상 제작 및 교육 실시

성과 및 기타사항



주요 성과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대전지방노동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청 주최, 주관 안전보건 UCC
경진대회 대상 수상(2016년)
- LH 주최 UCC 경진대회 입상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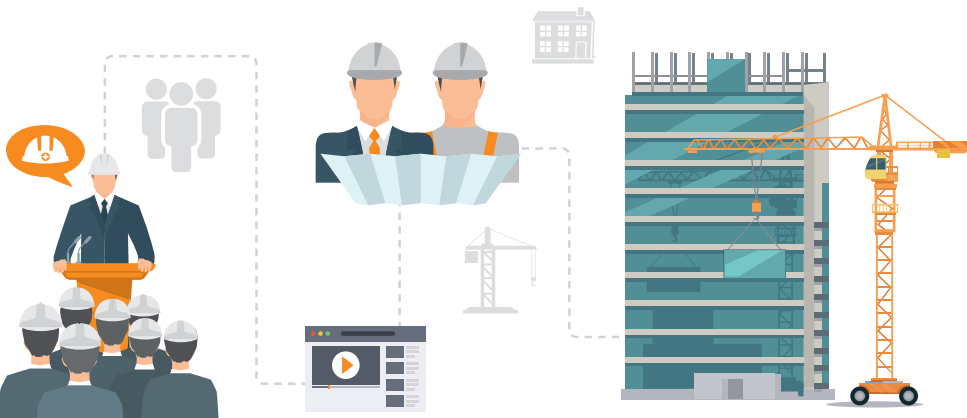
안전문화 확산

매월 넷째주 금요일 안전회의 실시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
현장별 안전보건관리책임선임자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발표
(월 1회 관리책임자 및 운영진 참여)



사회적 기여 활동

지역협의체 통한 중소기업장
기술 지원 활동, 사랑의 연탄배달·
유성경로원 길국수 DAY 등
경영진 및 전 직원이 주기적으로 참여해
불우이웃 돕기 실천





24

국무총리 표창

한경대학교 토목안전환경공학과 백신원 교수

집단지성 모아 안전사회로 간다

1996년 한경대학교에 안전공학과가 개설되면서 부임한 백신원 교수는 특성화된 학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1,000여 명이 넘는 안전전문가를 양성했다. 한국 안전공학의 산 역사로 불리는 백 교수는 “안전은 ‘비용’이 아니고, 안전 강화는 ‘규제’가 아니”라며 “건설업계의 내실과 경쟁력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은 ‘건설 안전’은 위기에 놓인 한국건설의 새로운 지향점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국민이 안심해야 국가경쟁력 오른다

백신원 교수는 노·사·정 안전전문가와와 정책포럼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직면한 문제를 심층 분석하고, 현장 적용성을 높인 안전 대책을 연구하고 있다. 백 교수는 “이제는 사고 발생원리에 대해 기술적·인적·조직적 요인을 다각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시대”라며 “과거의 사고요인이 주로 기술적 원인에 기인했지만, 최근에는 조직적·인적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 수주전이 지속되면서 한국 산업현장은 지금 안전보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투자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거기다 경험으로 습득한 기술만 있으면 일할 수 있다는 의식이 팽배해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부족한 편이죠. 또 인력수급의 불균형으로 외국인·고령 근로자의 비율이 커지면서 새로운 위험요인이 됐습니다.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사업주의 안전의식 및 안전자원 부족, 행정수단 접근의 한계로 안전사고 위험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계를 대표하는 안전전문가로서 백신원 교수는 그동안 40여 편의 논문을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게재하고, 국내·외 학술회의에서 32편의 논문을 발표해왔다. 또 <구조의 이해>를 비롯한 19권의 책을 저술했으며, ‘통로방향 진동감쇠기능을 구비한 물류보관용 렉 시스템’을 비롯한 2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안전학회에서 ‘국가시설물 구조안전전문가 설문 및 점검항목 연구’ 등 23건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 산업재해 예방에 두 소매를 건어붙였다. 지난해부터는 한국안전학회 부회장으로서 정부 및 기업체 자문에도 열정을 쏟고 있다.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및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면서 다양한 안전 관련 사업을 전개하기도 했다. 연구 일정 틈틈이 짬을 내 TV 등 언론 매체를 통해 국민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도 힘을 실었다.

원청기업 책임과 역할 확대해야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은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간접적인 손실도 크다.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함께 떨어지기 때문이다. 백신원 교수는 “협력업체의 안전이 결국 본사의 경쟁력”이라며 “궁극적으로 협력업체가 스스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하청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원청의 예방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원청이 하청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임지게 하는 등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 중”이라고 귀띔했다. 건설업체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백 교수는 “법적 기준만 지키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사고 예방을 안전관리자에게 일임해놓고 다른 사람들은 손 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고 지침을 가했다.

“중대 산업재해의 80% 이상이 협력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해율을 낮추기 위해 원·하청이 함께 노력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한국은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사업주 책임과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전에 이행되는 경우가 드물죠. 가장 중요한 건 원청회사 최고경영진의 의식과 실행조치라고 생각해요. 원청이 선도적으로 1차 협력업체를 지원하고, 1차 협력업체가 순차적으로 2, 3차 협력업체를 지도해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취약한 협력업체를 원청이 적극 지원함으로써 안전보건 격차를 해소하려는 사회적 책임의식이 확산돼야 합니다.”

노·사·정 협력해 안전한 일터 조성

백신원 교수는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산업재해예방시스템 선진화위원회 공익대표위원으로 참여해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감소 대책을 제시해왔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Code/Guide 제정위원회, 건설안전 분야 기준제정위원회 및 산업안전보건협의회 위원으로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설 분야 재해감소 대책 수립과 시행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백 교수는 “제자들이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진출해 국가 안전지수를 끌어올린다는 보람이 크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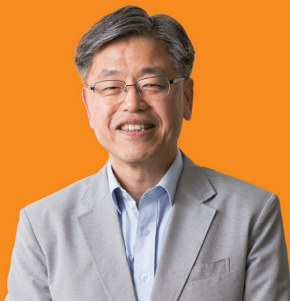
“지난 30여 년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추진한 각종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힘입어, 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 등 재해지표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산업재해 지표는 OECD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수준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계에서도 정부의 효율적인 산업재해예방 정책·제도 및 사업수행을 뒷받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계에 몸담은 연구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Safety Talk

“안전을 연구하는 학자의 길”

한경대학교 토목안전환경공학과 백신원 교수

지난 30년동안 안전에 대한 인식과 문화는 상당히 발전해왔습니다.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지만, 정부와 공단, 학계, 기업체 등에서 다양한 안전 분야 전문가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저 또한 1996년부터 지금까지 한경대학교에 몸담으며 1,000여 명의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들이 저마다 안전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어 뿌듯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학자로서 안전 분야의 다양한 연구를 개진하고, 정책·제도 수립과 국가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경대학교 백신원 교수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기여 활동



- 2012년 ~ 2013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업재해예방시스템 선진화위원회 공익대표위원(2012년 ~ 2013년)으로 참여하여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감소 방안 제시
- 한국도로공사, LH,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천공항공사, 서울시, 용인시, 안성시 설계심의 위원 등 활동
- 2015년부터 SK건설 SHOW CASE 인증심사 위원장 및 위원으로 활동
- 2014년 ~ 2015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 Code/Guide 제정위원회에서 건설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위원 및 산업안전보건협의회 위원 활동
- ‘가설구조물 설계반영 분석’을 비롯한 40여편의 국내외 논문을 저명학술지에 게재하고 국내외 학술회의에 32편의 논문 발표
- 1996년 한국안전학회 평회원을 시작으로 21년 동안 ‘국가시설물 구조안전전문가 설문 및 점검항목 연구’를 비롯한 23건의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에 기여
- 한국안전학회 부회장(2016. 3 ~ 현재)으로 정부 및 기업체 건설안전분야 전문 자문가로서 기여
- 2005년 6월부터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사무처장 및 사무총장으로 재임, ‘안전 짱’ 박람회 등 안전 관련 캠페인 등을 전개
- 2005년부터 KBS 1TV 취재파일 ‘화 부르는 발코니 개조’ 등 20여건의 다양한 공중파 방송에 전문가로서 안전 홍보



발행일	2017년 7월
발행인	이영순
발행처	안전보건공단 문화홍보실
주소	(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북정동)
전화	052-703-0717
자료발간번호	2017-문화홍보-589
취재 및 편집	큐라인(02-2279-2209)

고객님의 소중한 평가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 좋은 안전보건자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래 설문 양식을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ax. 052-703-0322

본 자료가 여러분의 재해예방활동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귀하는 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십니까?

경영층 안전보건 관리자 관리 감독자 근로자 기타

본 자료가 만족스러우셨습니까?

디자인·편집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내용 구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반적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귀하께서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

업종

- 제조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건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전기·가스·수도업 건물종합관리업
- 운수·창고·통신업 음식 및 숙박업
- 임업·농업·어업 도·소매업 및 수리업
- 기타산업 교육·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규모

- 5인 미만 5~49인
- 50~99인 100~299인
- 300인 이상

소중한 의견을 당첨의 기쁨으로 돌려드립니다!

설문엽서를 보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보내드립니다

금상 미니 빔프로젝트
(80만원 상당)
회차별 1명

은상 태블릿 PC
(40만원 상당)
회차별 2명

동상 건강밴드
(샤오미밴드 1S)
회차별 400명

경품추첨

1회차 2017년 7월 첫째주 **2회차** 2017년 12월 첫째주
'17년. 6. 23 이전 도착분 '17년. 11. 24 이전 도착분

* 경품 내용과 추첨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 당첨자는 경품 추첨일 이후 SNS로 개별통보 됩니다
[알람 받기를 원하시면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세요]

이름		전화	
회사명			
회사주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이용자는 해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안전보건 미디어 만족도 측정, 경품 추첨 및 우편발송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 ② 수집·이용 개인정보 항목
이름, 전화번호, 회사명, 회사주소
-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당해연도 (경과 시 일괄폐기)

상기 내용을 읽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동의 시 체크표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셔야 경품중첨 등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습니다